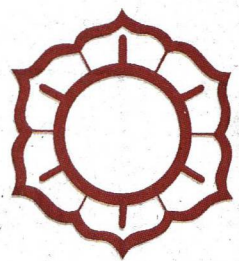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5년
10월 1일
토요일
제71호

이 달의 종조법설

마음 고쳐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관음보살 본심진언 「음마니반메흠」을 오나라나 항상 위우고 하루 열 번 이상 지성참회만 하면 탐진치는 물러가고 본심이 일어나게 된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홍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종 제66회 추계강공회 백월사·관성사 헌공불사, 스승 관정수계

총지종(총리위원장 우승)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의 스승과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강공회 기간에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관성사 헌공불사, 백월사 이설불사와 스승의 전법관정수계, 총기34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심의 및 결의, 종단의 중요정책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추계강공회에 즈음하여 우승 총지종 총리위원장은 "종단은 혼자의 힘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의 일치된 후원과 지도, 건전한 동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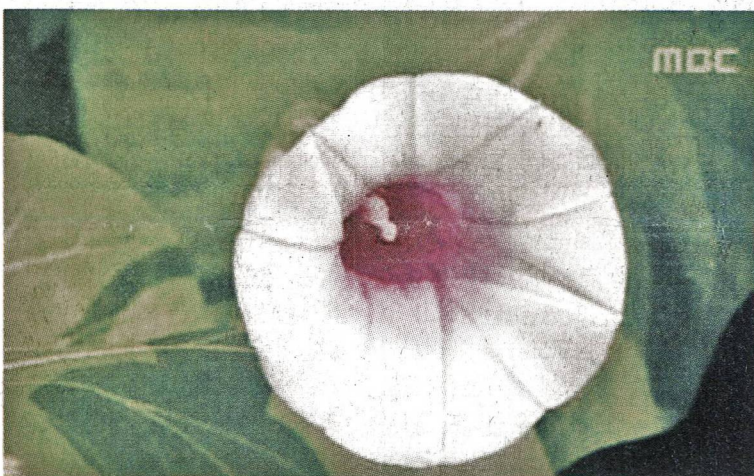


우리는 총지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비한 밀법을 수행하는 진언행자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부처님의 깨달음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진언행자로서 무엇보다 좋은 우리의 부처님 법을 모든 사부대중들이 알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공회를 계기로 밀법을 널리 홍보하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열린 종단, 화합된 종단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건전한 안건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총지종 포항수인사 '고구마꽃' 활짝 8월 12일 MBC 9시뉴스 보도



•앵커: 올 여름 느끼했습니까 마는 우리 기후가 점점 아열대형으로 가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 기후에서는 좀처럼 피지 않는 고구마꽃이 경북 등해안지역에 피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 도심지의 한 사찰입니다. 뒷밭에 심어놓은 고구마 줄기에 연분홍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같은 과에 속하는 나팔꽃과 흡사합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고구마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좀처럼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육환경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최상윤(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같은 데서는 온도만 높여주면 거의 꽃이 피지만 일반 노지에서 구경하기가 힘든 꽃입니다.

•기자: 고구마도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을 견디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난생 처음 보는 고구마꽃을 신기해합니다.

•지공 주교(불교 총지종 수인사): 수십년 농사를 지어도 고구마꽃을 못 봤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길조 아니겠느냐... MBC뉴스 한기민입니다.

“어르신들 얼굴엔 함박꽃”

경로법회 원만회향

“일찌기 좋은세상, 오늘 하루만 같아라, 이곳이 바로 극락이요,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총지종은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동안 충남 아산 도고 유스호스텔에서 “부처님세상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경로법회를 성황리에 회향했다.

경로법회는 전국사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과 50여명의 자원봉사가 참가하여 ‘부처님 세상 즐거운 하루’의 주제처럼 부처님의 세상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임제식을 시작으로 야외법회, 연예인 공연, 온천욕, 회향식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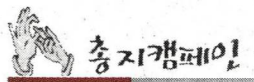
로 이루어졌으며, 연예인공연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연예인의 흥겨운 익살에 맞춰 흥겨운 한 때를 보내며 얼굴에는 익살의 함박꽃이 가득했다. 또한 도고온천에서 온천욕으로 그동안 지치고 피로한 심신을 재충전하였다.

특히 이번 경로법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처님같은 마음으로 마치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듯 지극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돌보아주어 이 법회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충남 아산 도고온천에서 열린 불교총지종 경로법회에서 어르신들이 야외법회를 즐기고 있다.

경로법회에 참가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종단에서 마련된 경로법회에 참가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 종단에서는 평생동안 진언행자로서 살아온 노보살들을 위해 노인요양원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국노의 땅

조선조 24대 왕 헌종이 23세의 나이로 후사가 없이 요절하자 왕족 중 기개 있고 출중한 인물로 이하전(李夏鎭)이 왕위계승자 물망에 오른다. 그러나 외척 안동(安東) 김씨의 반대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고 이때부터 이하전은 안동 김씨들의 감시와 미움을 받다가 1862년(철종13년) 김순성(金順性)·이공선(李兢善) 등이 그를 왕에 추대하고자 모반을 꾀했다고 이재두(李載斗)가 무고하여 제주도에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그 후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 세력들을 축출하고 자신의 사촌인 이하전의 신원을 복권시켜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해창(李海昌)은 공신의 아들로서 인정받아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을 받을 수 있는 음보(蔭蔭)제도의 혜택으로 종친부 참봉이라는 벼슬로 시작하여 1904년 서울시장직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지내다가 1910년 강제 한일합방에 협조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많은 은사금과 땅을 받은 인물로 현재 친일 매국노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지금 그 후손들이 조계종 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末寺)인 수락산 내원암 일대의 4만8천여평의 땅을 되돌려 달라는 재산반환소송을 했고 이에 맞서 내원암측은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내고, 후손들은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내원암 측에서는 소송 취하 동의를 거부하는 등, 민사소송에서 보기 힘든 사태가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지난 한 해 동안 일제로 부터 거액의 은사금과 자작의 작위를 받은 이기용을 비롯해 정미철이면서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 을사오적 중 한명인 이근택 등 주요 친일파 32명의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찾은 땅만 24만평이라고 법제사법위 소속 어느 국회의원이 발표했다.

이해창은 고종과 6촌간이며 왕족의 아주 가까운 일가이다. 더욱이 민약 그의 부친이 죽지 않았다면 그도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그의 후손들도 모두 왕족의 후손들이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최근 600년간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조의 후예로서 자긍심이나 명예는 전혀 없고 오직 물질적 욕심만 보이는 옛 왕조의 후예들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 지울 수가 없다.

죽비소리

이간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간에 투쟁을 하지 않으며 화합의 말을 즐겨 사용하면 그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곧 천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입의 허물 가운데 양설이 가장 무겁다. 말 많은 것을 너무 좋아할 때는 탐욕을 늘리고 남을 두렵게 한다. 입의 허물은 스스로를 자랑함과 그리고 양설이 그 제일이니라

법원주립, 중에서

제66회 추계강공회

금강같은 정진, 교화의 혁신과 종단의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4년 10월 17일(월) ~ 총기 34년 10월 20일(목)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위원장 우 승



사설

총지불교대학의 활성화

총지불교대학이 올해 5월말부터 정각사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부터는 서울경인·충청·전라교구 스승들을 대상으로 제2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된 아사리과정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승직자로서의 자질개발과 밀교아사리로서의 명실상부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교구 스승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난 학기의 강좌는 미흡한 교육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승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으로 비교적 성공리에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지사에서 시행되는 제2차 교육도 소기의 목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장 교화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작금의 교화추진에 대하여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으로 일선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승직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장기적으로는 교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며 더구나 이러한 교육은 총지종의 30년 역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승단전체의 관심과 지혜로써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즉 처음부터 완벽한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승단 구성원 모두의 합심 노력으로 총지불교대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는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도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우리 총지종도 명실상부한 정통불교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굳건한 교육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승단 집행부는 물론이고 전 승단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

총지불교대학은 현재 법장원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중앙교육원에 이관되어야 할 업무이다.

현재 법장원은 순수교리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도 벼찰 정도로 인력구성이 미약하며 이들이 중앙교육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강의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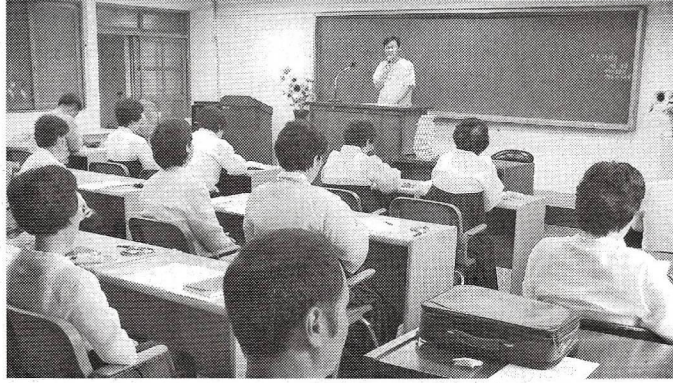
또한 현재 세 명의 박사들로 구성된 교수진도 수많은 교과과정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수진의 보강을 위해서는 우리 종단의 실정을 이해하고 실력이 있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데, 예를 들면, 승직자 가운데에서도 강의능력이 있는 분을 발굴하여 강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명칭만 유지되고 있는 중앙교육원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종단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현재의 수강형태로는 단 시간에 교육효과를 높이기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는 일주일에 하루 수강을 하며, 월초불공기간에는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완료되는 한 학기당 수강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정기적인 집체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도 불공 못지않은 중요한 불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억지로 할애해서라도 강의시간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수강생들도 내가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총지불교대학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출석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노력이 더해져서 현재 개설중인 아사리과정 뿐만 아니라 일반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강좌가 개설되어 총지종의 전반적인 교학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상과 사상으로 교화활성화”

서울·경인교구, 충·전교구 총지대학 개강



총지불교대학에서 스승님들이 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9월 2일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우승 총리원장과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스승, 시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지불교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서 우승 총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교계에서 포교가 활성화되고 교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일부사찰의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신도와 승직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은 올바른 교리공부와 수행실수를 통해 불교의 사상과 교상을 확립하고 확고한 신앙심을 가

질으로써 자신의 종교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승직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을 통해 수행력을 고양시켜 신도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은 한 조직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단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불교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품성과 계율을 제공하고 청정한 수행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종단의 미래는 교육을 통해 발전하

고, 스승님들은 높은 수행력과 지혜를 체득하여 교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교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스승님들께서는 총지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의견제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지대학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스승과 시무들을 대상으로 서울 총리원에서 매주 목요일 불교교리와 수행, 비교종교학, 밀교이론, 한문 등의 과목으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취적 기상으로 동해인의 자부심”

총지종 종립 동해중 제38회 개교기념식



우승 총지종 총리원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는 지난 9월 23일 본교운동장에서 제38회 개교기념식을 우승 총지종 총리원장, 의강 동해중 이사장, 동해중 동문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식식을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수상, 총지종 장학금전달, 의강 이사장축사, 우승 총리원장 축사, 학교장 축사, 동문회장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불교적 신심이 돈독한 학생들에게 총지종에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우승 총리원장은 축사에서 “인시위주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바른 가치관

으로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부처님께서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평화롭게 유지하여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강 동해중 재단이사는 “동해중 학교는 불교총지종에서 경영하고 있는 종합학교로써 종조이신 원정대사님의 건학이념에 따라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학교설립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해중학교는 부산시내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타학교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더 충실히 받들어 실천하고 가지 연마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그동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정치, 경제면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꾼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많으며, 앞으로도 훌륭한 일꾼들을 기르기 위해 재단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은 노력하고 있다.

알림방

- 추계강공회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리원에서 개최됩니다.
- 관성사 헌공불사가 10월 17일, 백월사 이설불사가 10월 21일 동행됩니다.
-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개최됩니다.
-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가 10월 8일 오후 6시 불국사 청운교에서 열립니다.
-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오페라가 10월 14일~15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대법고

교도관리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총지종이 창종된지도 어느덧 30여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30여년의 세월동안 총지종의 교세는 초창기에는 해성과 같이 타오르는 불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타올랐지만 최근에는 초창기의 열화와 같은 교세는 주춤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교세의 답보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종단내 스승님과 교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하게 얽힌 문제점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론상으로 해결책은 각자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고, 실행에 옮겨진다고 해도 많은 반대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도수의 연령은 점점 노령화되고 새로 제도되어 들어오는 교도수는 적은 형편으로 일부 사람들은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교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사원에서는 스승님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교도들의 생활상태나 현황을 파악하고 자살이나 월초불공기간에 참석하지 않는 교도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스승님들은 정해진 불공과 사원관리, 가정방문 등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한 형편이다.

이렇듯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교도관리는 자연스레 등한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물며 교도들을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교도들을 제도하기 위한 포교활동이 전무하다 보니 교세의 답보는 예견된 일이다.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필요없고, 신도가 없으면 절의 존재가치가 필요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종단의 중흥을 보면 교도관리를 위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교나 타종단의 경우를 보면 신도들의 구성원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지역법회를 마련하고 지역장을 선임하여 지역내의 신도들을 관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도 동호회를 조직하여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지역장이 신도들을 관리하다 보니 서로간의 불신은 없어지고, 서로간에 동료의식이 생겨나 퇴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각 지역별로 지역법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행에 감화되어 제도가 되고 교세확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타종교는 신도관리와 교세확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종단에서는 교도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종조 원정 대대사님께서도 창종당시부터 크고 넓은 신안으로 교도관리의 체계를 정비하여 법제화하였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종단에서는 종조님께서 제정하셨던 법규를 다시 정비하여 시행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일선사원의 스승님들께서 시행하기에는 교화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총리원과 법장원에서 위원회를 마련하고, 시법사원을 선정하여 시법운영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종단은 모든 시스템이 중앙집권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기구인 총리원과 법장원의 역할에 따라 종단의 성패가 좌우됨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업무관리와 모든 업무에 중·단기 계획을 설정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는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교도관리는 교세확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 공공사원인 오세대제도를 실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

개천사 김옥희 7.28 10,000	단음사 이규성 8.9 3,000	벽룡사 오미순 8.10 3,000	자석사 우바이 9.16 60,000	정각사 황영숙 7.26 10,000
개천사 김옥희 7.28 10,000	단음사 이규성 8.23 3,000	선림사 대 덕 7.27 10,000	자석사 조창환 9.13 20,000	정심사 박옥란 7.22 20,000
개천사 무명씨 8.17 5,000	단향사 공철봉 9.5 5,000	선림사 대 덕 8.25 10,000	정각사 구정희 8.22 20,000	정심사 박옥란 8.25 20,000
개천사 이희권 7.25 10,000	만보사 민순분 8.24 10,000	선화사 우담바라 8.17 100,000	정각사 김점남 7.28 10,000	정심사 오윤보 8.10 5,000
개천사 이희권 8.31 10,000	만보사 박정심 7.22 10,000	수인사 김봉기 8.3 10,000	정각사 김점남 8.30 10,000	총지사 이인성 7.22 30,000
관성사 김병석 8.2 10,000	만보사 배정임 8.16 10,000	수인사 김봉기 9.7 10,000	정각사 남숙자 8.1 20,000	총지사 이인성 8.25 30,000
관성사 김홍조 8.31 10,000	만보사 배정임 9.13 10,000	수인사 한애숙 8.31 20,000	정각사 남숙자 9.1 20,000	하나은행 9.2 100,000
관성사 황성녀 8.1 10,000	밀인사 무명씨 7.28 10,000	실보사 송희준 8.17 10,000	정각사 무명씨 8.11 10,000	해정사 박중선 8.26 20,000
관성사 황성녀 8.29 10,000	밀인사 김덕배 8.31 10,000	실보사 안경순 8.26 5,000	정각사 무명씨 8.23 10,000	해정사 수중원 8.8 20,000
관음사 신막심 9.1 10,000	밀인사 무명씨 7.22 10,000	실보사 이순옥 8.3 5,000	정각사 박말연 9.5 5,000	해정사 자성신 8.30 10,000
국민은행 9.2 100,000	밀인사 신대식 8.23 5,000	실보사 이순옥 9.6 5,000	정각사 박영주 7.28 5,000	해정사 정은선 8.26 20,000
기로원 대 관 8.1 10,000	밀인사 신동희 8.23 5,000	실지사 박병성 7.27 5,000	정각사 박훈휘 8.19 10,000	해정사 조성기 7.27 10,000
기로원 대 관 8.22 10,000	밀인사 신동희 8.23 5,000	실지사 박병성 8.25 5,000	정각사 박훈휘 9.21 10,000	해정사 조성기 8.30 10,000
기로원 대 관 9.14 10,000	밀인사 이연수 8.24 10,000	실지사 손우성 9.5 10,000	정각사 신옥필 7.29 5,000	해정사 조성기 8.26 20,000
기로원 대자행 8.1 10,000	밀인사 이연수 8.24 10,000	실지사 정경자 7.25 5,000	정각사 신옥필 7.29 5,000	해정사 지성인 8.26 20,000
기로원 대자행 8.22 10,000	밀인사 이재호 8.24 10,000	실지사 정경자 8.24 5,000	정각사 신옥필 9.7 5,000	해정사 해보심 8.24 20,000
기로원 대자행 9.14 10,000	밀인사 이해성 8.23 5,000	실지사 정연숙 7.27 5,000	정각사 윤선자 7.28 10,000	화음사 강순란 9.1 5,000
기로원 법정화 8.1 10,000	밀인사 이정희 8.1 5,000	실지사 정우석 8.11 10,000	정각사 윤선자 8.30 10,000	흥국사 강한빛 7.28 20,000
기로원 법정화 8.22 10,000	밀인사 이정희 8.31 5,000	연흥종합건설 9.2 300,000	정각사 이란이 8.12 10,000	흥국사 강한빛 9.2 20,000
기로원 법정화 9.14 10,000	밀인사 교도일동 7.29 200,000	우리은행본포 9.2 50,000	정각사 이수입 8.23 5,000	흥국사 안화자 7.22 10,000
기로원 불멸심 8.1 10,000	백월사 무명씨 8.30 10,000	우리은행역삼 9.2 200,000	정각사 이수입 8.3 5,000	해정사 해보심 8.24 20,000
기로원 불멸심 8.22 10,000	백월사 박삼순 7.29 10,000	운천사 김성숙 7.27 20,000	정각사 이수입 8.3 5,000	해정사 이상국 8.26 100,000
기로원 불멸심 9.14 10,000	백월사 박삼순 8.30 10,000	운천사 성주현 8.17 10,000	정각사 정희연 8.2 10,000	해정사 이상국 8.17 5,000
기로원 상징화 8.1 10,000	백월사 유승태 8.1 5,000	운천사 이상용 8.24 20,000	정각사 정희연 9.20 10,000	해정사 임상열 9.14 5,000
기로원 상징화 8.22 10,000	백월사 유승태 8.31 5,000	운천사 이성미 8.18 50,000	정각사 조현필 7.29 5,000	해정사 임상열 8.19 30,000
기로원 상징화 9.14 10,000	백월사 임승민 8.2 3,000	운천사 인 선 8.3 20,000	정각사 최분순 7.28 10,000	해정사 진관사 8.16 5,000
단음사 박덕재 8.16 10,000	벽룡사 오기순 8.12 10,000	자석사 우바이 8.16 71,000	정각사 최분순 9.7 10,000	해정사 최순전 9.5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칼럼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승직자와 재가자의 관계란?



김종인

- ▲(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 ▲(현) 불교평론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에서 출발하지만 그 영

향력은 정치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에까지 미친다. 우리가 민주사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총체적인 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종교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서구의 중세 봉건사회가 근대의 민주사회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종교 혁명을 겪게 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과거에는 성경은 오직 승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되어 있었지만, 종교혁명 후에는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일반 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스스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의 운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 신도들은 교회에 세금만 바치고 그 운영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으나, 종교혁명 후에 새로이 생긴 교파의 교회들에서는 신도들이 세금 대신 헌금을 내고 점차 직접 교회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신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고용하기까지 한다.

종교 영역에서의 이러한 민주주의 문화의 확산은 또한 그 부작용도 낳았다.

교회 운영에서 신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성직자들의 권위가 실추되게 된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다. 정치적 힘과 결합된 종교적 권위로 신도들에게 군림하다가 부패하는 것이 과거 기독교 승직자들의 문제였다면, 신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만 하게 되는 것이 종교혁명 이후의 기독교 승직자들이 점차 겪게 되는 문제이다. 더 이상 경건한 가르침을 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불교계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적응이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불교의 민주주의의 문화에의 적응에는 매우 특수한 면이 많다. 한국불교는 과거에 정치권력과 결합된 종교적 권위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랜 동안 정치적 박해 속에서 기본적 권위를 실추당하고 있었다. 승려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기는커녕 천민 신분으로서의 온갖 사회적 수모를 당하며 살았다. 서구 사회에서의 기독교와는 반대로 봉건사회라 할 수 있는 조선조가 멸망하면서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자신의 정당한 권

리를 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역시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습속으로 인하여 승려들이 종교인으로서의 자신들의 권위를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서 승려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었으며, 승려들 역시 과거의 천민적 삶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성철스님이다. 그는 안으로는 승가사회를 개혁하고 밖으로는 승려와 신도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승려들이 천민적 삶을 살면서 무당집처럼 만들어 놓은 절간을 청소하고, 청정한 계율을 정립하고, 철저한 수행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승려들의 위상을 정립시켜 주었으며, 승려들로 하여금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신도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성철스님을 보려는 사람은 누구나 삼천 배를 해야 했으며, 모든 승려들에 대한 삼배의 관행이 정착되었다.

성철스님이 정착시킨 삼천 배와 삼배의 관행은 민주주의 사회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이러한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스님이 승려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권위를 세운 것은 한국불교사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승려들은 수백 년에 걸친 정치적 압박으로 실추된 사회적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당한 권위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법적·제도적 평등이 종교인의 정당한 권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권위란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계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권위는 민주주의 시대에 더욱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불행히도 자본주의와 함께 태동하였는데, 그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긍정하고

정신적 수준의 차이는 부정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재력의 위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정신적 권위는 인정하려들지를 않게 되었다. 결국 화폐가치의 힘이 정신적 가치의 힘을 지배하게 되고, 가치 자체를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이다. 오늘날의 민주사회는 부처님이 운영해 온 사회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사회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만든 승가의 전통은 전 승가가 경제적으로 평등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엄격한 위계의 질서를 두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를 모두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승직자들도 재가신자들도 모두 민주주의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종교생활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승직자들은 봉건적 사회의 유골인 외형적인 권위를 버리고 내적인 자기 충실을 기해야 한다. 일반 교도들의 교단의 운영에도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면에 일반 신행인들은 승직자들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 문화에 오염되어 승직자들의 정당한 권위를 부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행자가 아닌 것이다.

이달의 설법문안

바른 정진과 용맹정진이 해탈의 길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댕들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단단한 돌덩이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그와 같이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긴 시간을 인내할 만큼의 끈기가 부족하거나, 쉬고 싶고 미루고 싶은 유혹에 지거나, 지레 겁먹고 그 가능성마저 포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빨리, 쉽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호락호락한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일들도 알고 보면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고, 말하고, 글씨를 쓰고 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도 사실은 한 순간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나중에 하지 뭐"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었거나 "난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해 버렸다면 아마 아직도 유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비록 바윗돌과 같은 난관에 부딪힌다 해도 그것을 일상적인 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으르다면 사소한 일들도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이란 모든 허물의 바탕이다.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衣食)이 부족하고, 사업이 쇠퇴할 것이요,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의식이 풍부해지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요, 출가한 이가 정진하면, 법을 모두 성취하

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나니, 모두가 정진에 의해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흔히 온순, 종교, 허무의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불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정진론자'라고 하시 만큼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정진불교"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신의 구원이나 우연에 근본적으로 배격하고 인간 스스로의 끊임없는 수행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의 구원을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우연히 구원이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도 일명 정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노력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변해 가나니, 게으름이 힘써 정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이 비록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지만 진리에 대한 무지마저도 초극할 수 있는 것이 정진의 힘하기에, 중생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더 큰 원인은 게으름이기 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기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혜의 눈이 정정한 자는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제자 중에는 우둔하기로 소문난 판타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를 나서려는데 그가 큰 소리로 울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다가 가 물었습니다.

"판타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부처님, 저는 사형이 가르쳐 주는 계승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형은 저더러 희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께서서는 판타카의 손을 붙잡고 고요한 방

다, 마침내 마음이 해탈되어 해탈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쁜 얼굴로 사퇴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제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착하다 비유야, 네 말과 같다. 지혜로 번뇌의 티끌을 없애는 것이다."
이 구절은 정진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판타카가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내용입니다. 단어 두 개조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그가 끊임 없는 정진 끝에 이러한 성인의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자인 사람도 게으르면 어리석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노력으로 지혜롭고 부유함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노력은 자신을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듭니다. 또한 무식하게 노력하면 몸만 고단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온갖 비행과 잡기에 열중하는 사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진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진이란 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수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돌이갈 항구도 모른 채 노를 젓기만 하거나 입으로만 노 젓는 방법을 외는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걸로 드러나는 노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정진이란 사욕하고 건전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일어났다면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하고 건전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존재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은 완전하게 개발하는 데 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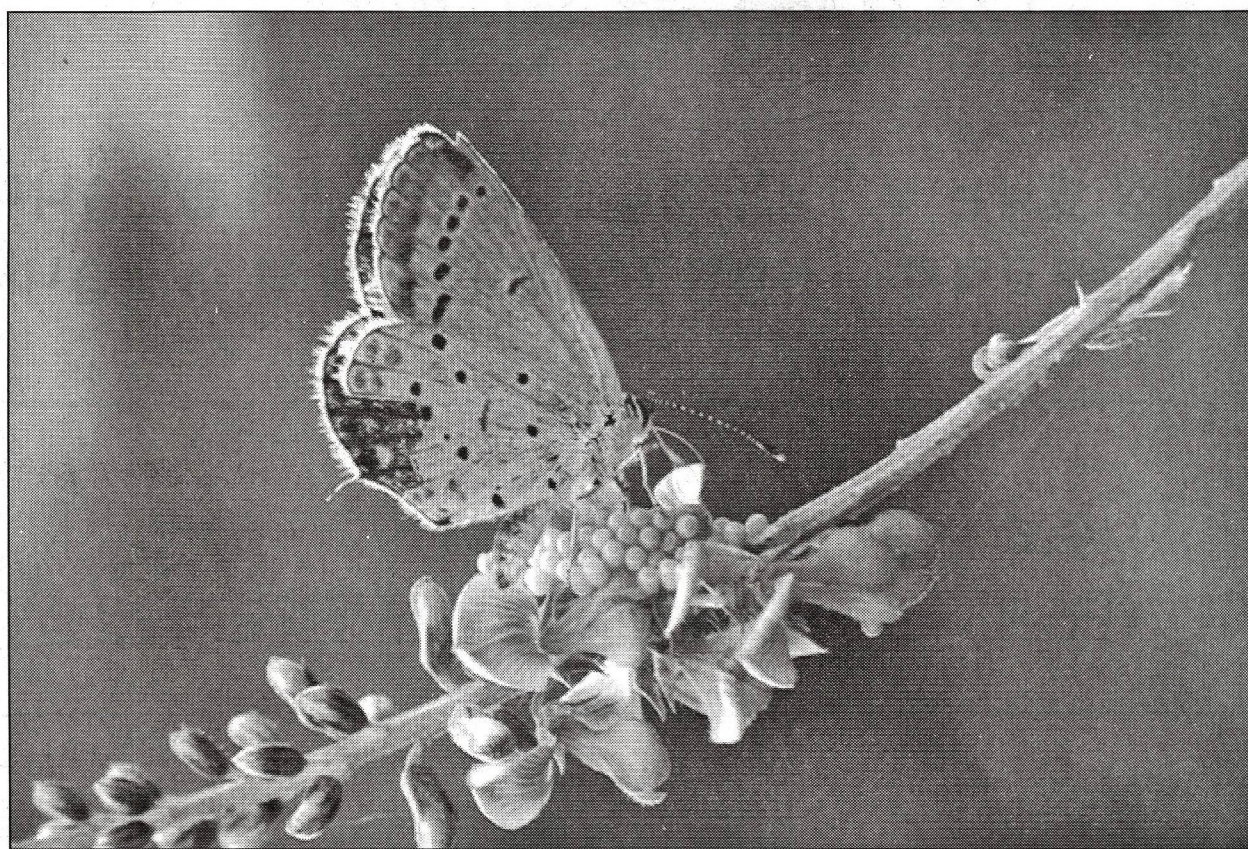
우리는 게으름과 같은 잠깐 생각이 더이상 발붙일 수 있도록 철저히 간절할 마음으로 하는 정진이 바로 용맹정진입니다.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의 삶에 천력투구하는 것이 용맹정진입니다. 훗날처럼, 폭포수처럼 부단히 깨달음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맹정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밥새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 선사들은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한다"라고 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따듯하면, 너그러워 여유로우면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하는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출요경》에 "게으른 사람들은 너무 이르다 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늦다 하여 할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배부르다하여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다하여 일을 하지 않으며, 너무 덥다하여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춥다하여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의 여감은 상당히 곱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빈틈을 알아내는 데는 빠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그만 약이라 하여 가뭄이 여기저기 말고 조그만 선이라 하여 무시하지 않으며 꾸준히 악을 끊고 선을 기르는 데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진을 생활화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종교

으로 가서 빗자루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쓸고 닦아라' 이 구절만 외우고 생각하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판타카는 "쓸고"를 외우면 "닦아라"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며칠만에 "쓸고 닦아라"를 외우게 되었고,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판타카는 드디어 이 말의 깊은 의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쓸고 닦아라"는 말은 티끌을 없앤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무슨 깨달음으로 이것으로 나를 가르치시는가. 지금 내 몸에도 티끌과 때가 있다. 나를 스스로 비유해 보자. 무엇을 없애는 것이며, 무엇이 때문가. 그래 번뇌는 때요, 지혜는 없애는 것이다. 나는 지금 지혜의 비로써 이 결박을 풀어버리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③0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소향보살(燒香菩薩) · 도향보살(塗香菩薩) ·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

지난 호에서는 관음원의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 · 보공양(寶供養)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소향보살(燒香菩薩) · 도향보살(塗香菩薩) ·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향보살(燒香菩薩)

소향보살(燒香菩薩)은 향을 태워 나는 연기(香煙)를 공양하는 사자(使者)이다. 인상(印相)은 인지(人指)와 엄지로 향로의 모양을 본뜨고 다른 손가락은 향로(香爐)로부터 나는 향연(香煙)을 나타낸다. 향연이 맑음을 널리 미치는 것처럼 이 공양이 어디까지나 널리 퍼져, 온갖 것을 맑게 한다.

진언은 『대일경』에 나오는 소향공양(燒香供養)의 진언으로서 대개 십팔도(十八道)의 오공양(五供養) 중 소향공양(燒香供養)을 올릴 때 외우는 진언이다. 소향보살의 진언은



소향보살



도향보살



연화부사자

'나막 사만다보다남 다라마타바트가데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계에 널리 있는 자여! 사바하'의 뜻이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없고 삼매야형(三昧耶形)이 향로(香爐)이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서 천의(天衣)를 착용하고, 연대(蓮臺) 위에 앉아 양손에 향로를 들고 있다. 인상(印相)은 약지, 무명지, 중지의 세 손가락 바깥쪽을 합쳐 나란히 세우고, 두 개의 인지(人指) 끝을 서로 붙이고, 두 개의 엄지를 펴서 인지(人指)의 측면에 붙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도향보살(塗香菩薩)

도향보살(塗香菩薩)은 소향보살과 함께 수길상보살(水吉祥菩薩)의 사자(使者)이다. 이 사자의 범어명칭 Gandhapuja 은 '향기를 공양하는 자'라는 뜻이다. 한역명(漢譯名)의 도향(塗香)이란 원래 인도에서 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밀교에 와서는 행자(行者)가 부처의 경지를 체현(體現)하기 위하여 몸에 바르는 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 본존(本尊)에 향기를 공양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진언은 『대일경』의 도향공양(塗香供養)의 진언이며, 십팔도(十八道) 수법(修法)의 오공양(五供養) 중 도향공양(塗香

供養)의 진언이다. 이 도향보살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비슈타켄트한반야 사바하'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맑은 향기로부터 생기는 것에! 사바하'라는 뜻이다. 이 보살의 경우에도 밀호(密號)는 없고 삼매야형이 도향기(塗香器)이다. 즉 향을 담아두는 그릇이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연화대(蓮華臺)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합장하고 들 핀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왼손으로 오른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의 다섯 손가락을 펴고 팔꿈치를 세워 밖을 향하여 있는 결인이다. 이 결인을 취하여서 이마, 입, 가슴에 대어 늘어뜨리고 도향(塗香)을 바르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

지난호에서도 연화부사자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위의 두 보살과 함께 Duti라고 하는 4존의 또다른 연화부사자가 배대

하고 있다. 첫째는 왼손에 칼, 오른손에 들 핀 연꽃(未敷蓮華)을 들고 있는 사자, 둘째는 왼손에 꽃을 담은 금강반(金剛盤)을 들고 오른손은 그것을 받들고 있는 사자이며, 셋째는 양손으로 수많은 미부연화(未敷蓮華)를 담은 금강반(金剛盤)을 들고 있는 사자, 넷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합장하고 있는 사자이다. 첫 번째 사자의 삼매야형은 미부연화(未敷蓮華)와 검(劍)이고 두 번째 사자의 삼매야형은 금강반(金剛盤) 위의 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자는 해당하는 삼매야형이 없다. 이들 넷 사자의 밀호(密號)는 없고 연화합장이 이들의 인상(印相)이다.

진언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사자는 같고, 세 번째 사자만 다르다. 전자는 '나막 사만다보다남 지 시리 캄 보람 사바하'로서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혜로운 자여! 길상인 자여! 사바하'라는 뜻이고, 후자는 '나막 사만다보다남 기사타 라 엔 켄 사바하'로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순식간에 구제하는 자여! 사바하'라는 뜻이다.

이상으로 관음원(觀音院)의 불보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보았다. 관음원에는 총 37존이 모셔져 있다. 관음원을 마치고 다음호부터 태장계만다라의 네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금강수원(金剛手院)'의 불보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강수에는 총 33존이 모셔져 있다.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괴로운 마음을 흘러보내자



법경사 (사무국장/연구원)

▶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사소한 것들을 그냥 흘러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흘러 보내지 못한 데서 괴롭고 성냄과 원망(怨念),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바로 보고 흘러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단지 자신에게 말로만 "흘러 보낸다, 흘러 보낸다."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흘러 보내지지 않는다. 자신이 현재 집착하는 것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을 실제로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문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보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불을 놓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 뜨거운 열을 느끼고 동시에 놓아버려야 우리는 진정 그리고 저절로 그것을 놓게 되고 다시는 그것을 쥐고자 하지 않게 된다. 수행하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우리는 세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법(法) 안에 있게 된다. 만약 그 마음이 속세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불처럼 뜨거워진다. 그리고 늘 그 속에 허덕이게 된다. 만약 바른 법,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게 되면, 뜨거운 불이 아니라 물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숲이나 산에서 살든 간에, 사소한 정도의 차이일 뿐, 똑 같이 행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나 정원과 같은 안식처가 없다.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빈곤함은 실제 그 무엇을 하든 마음 공부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오직 즐거움을 찾는 것을 배우고 감각적인 것들에 기쁨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들에 대하여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결과 우리의 삶 안에 지혜란 거의 없으며, 모든 것이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거룩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자애심을 베풀고, 선한 가족의 아들과 딸들에게 계를 주고, 수행으로 이끌어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래서 불교는 25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 이제 우리가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억지(憶持)한다면, 이 세상이 단지 허황된 생각과 괴로움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허망한 중생은 지금 이 생애에서 어떠한 상태나 직위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명한 삶을 살게 뿐이다. 우리 진언행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가슴과 마음을 불사르는 모든 번뇌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말로 진지한 수행자로서 자신의 일상의 활동 가운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자신을 수고하는 수행생활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모든 괴로움과 긴장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며, 극과(極果)이다.

▶ 만약 마음을 자연스럽게 놓아 둔다면, 그것은 스스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물을 흔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히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수행중인 마음을 항아리에 들어 있는 흙탕물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그 물을 흔들어대거나 휘젓지 않는 한, 흙탕물의 더러운 입자들은 바닥에 가라 앉을 것이고, 물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비추어 질 것이다. 본래 마음의 성품은 단지 우리가 변함이 없는 자연스런 상태로 그냥 놔 둘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이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현명한 자에게는 살아있는 매일 매일이 행복과 즐거움, 행운의 날이지만, 어리석고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는 매일 매일이 지옥이며 불운의 날이다." 오로지 즐거움과 괴로움의 주인은 나이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 확인을 진언 염송과 월초불공, 자성불공을 통해 각자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월초불공에도 또다시 나를 점검해보자. 생활 속의 밀교는 생활 가운데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다. 월초나 자성일 때 서원당에 나와서 하는 것만이 생활 속의 불공이 아니다. 생활 속의 불공이기를 서원한다.



진언수행의 길

육합상은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교기와 건물 그리고 각종 마크와 의복의 뺏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육합상은 중앙에 원으로 되어 있고 원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연꽃잎과 가시광선으로 둘러져 있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무시무종의 뜻이요, 또 이 우주의 운행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며 법신 비로자나가 곧 원이라는 뜻이요, 만다라를 윤원구축으로 표현하며 대일여래는 곧 태양을 의미하므로 원에서 광명

을 발사하는 뜻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외곽의 육합은 불교의 교화인 연화를 표시하는 동시에 육자대명, 육바라밀, 육합, 육도, 육근, 육경, 육식, 육대, 육관음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육자진언중 마니는 원이요, 반메는 연화며, 원은 남성이요, 연화는 여성이다. 즉 남녀상교, 음양원융의 뜻이며 원은 물질(과학)이요, 연화는 심성(종교)라 물질불이의 뜻이며, 원은 현실이요, 연화는 진리라 당상즉도 즉사이진, 색심불이, 번뇌 즉 보리의 뜻이다.

이 육합상은 총지3년(1974년) 10월 21일 제4회 중앙종회에서 총지종의 교기로 제작기로 결정하였다. 교기는 중앙에 홍색으로 표시하고 바탕은 황색으로 결정하였다.

육합상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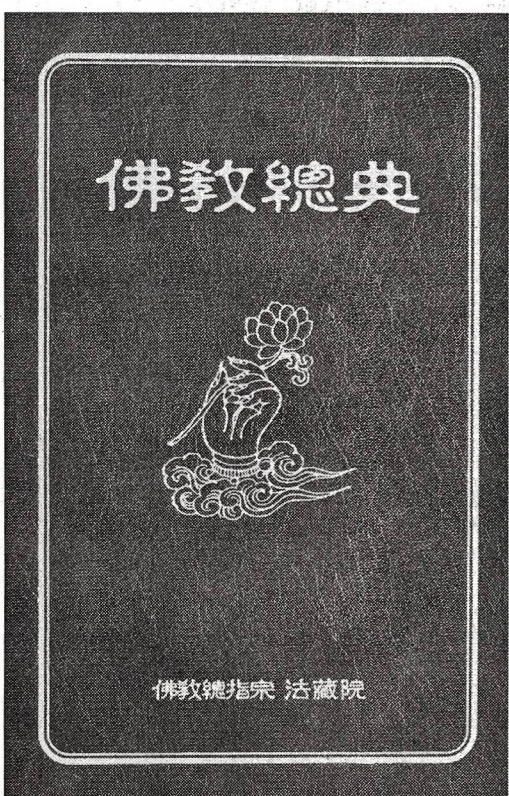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기획연재>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1>

종교 원형 대성사계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흥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 밀교(密敎)란 의식(儀式)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것이 의식이요 제전(祭典)이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다. (예: 도량, 불단 등) 또 용구, 언어, 행동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 공간, 물체, 동작, 언어 등 성(聖)스럽다 할 수 있다.

이와 상대(相對)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이라고 하고 순(純)불교적인 생활을 출세간(出世間)적이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비밀(秘密)적인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비밀(秘法)을 수습 또는 체득하는 것이 본령(本領)으로 되어 있다. 여타의 종교보다 불교에서 비밀이 많고 그 대표적 것이 밀교라고 하겠다.

불교를 대별하여 소승, 대승, 밀교의 셋을 들 수 있고 석가모니불의 교설(敎說)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 발달하여 왔다고 하는 설(說)도 있으나 실은 불타 자신의 교설(敎說)중에는 이 모든 것이 최초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부분별로 중점을 두어서 전해 왔으므로 어떠한 계통은 소

승, 어떠한 계통은 대승, 어떠한 계통은 밀교라는 등 상이한 경향이 평행(平行)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이나 파리어성전중에도 대승 내지 밀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일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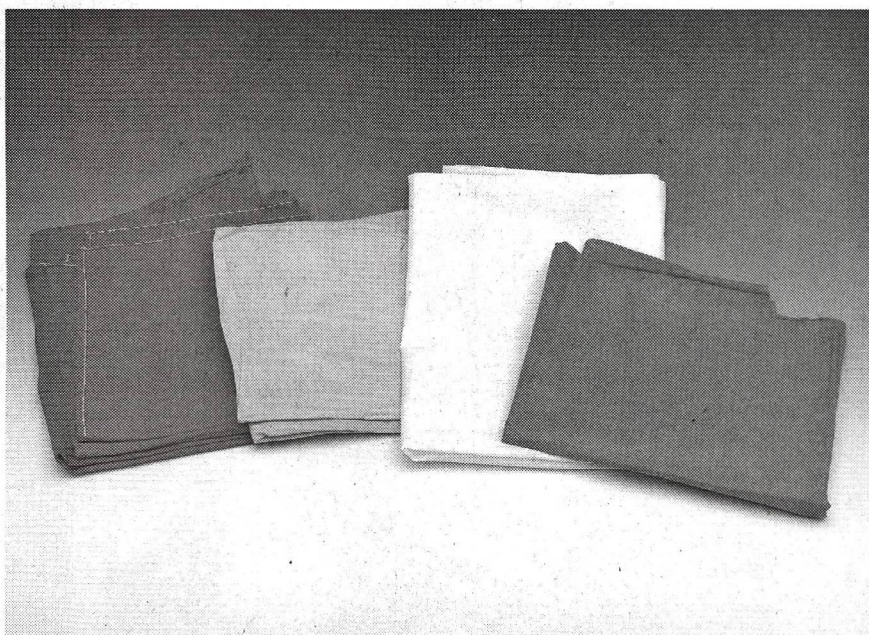
2. 불교의 신통력에 대하여 불타시대에는 모든 종교의 성자(聖者)들은 기적(奇蹟)을 행(行)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교에도 불타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성자(聖者) 아라한들은 육신통(六神通)에 통달(通達)했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도 빈두로(寶頭羅)와 연화색니(蓮花色尼)의 신통력은 유명했다.

불타가 포교활동을 개시(開始)할 당초에 가섭이 제자가 된 것은 신통력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사위성에서도 불타의 신통력은 발군(拔群)적이었다.

이상의 사실은 한역과 파리어 성전(聖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기사(記事)가 후세의 가필(加筆)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에 주의 할 것은 신통력을 과시하여서는 안된다는 불타의 지령(指諭)이다.

어느때 사위성에서 한 사람의 시인이 긴 죽간(竹竿) 끝에 값비싼 탁발(托鉢)용 바루를 얹어놓고 "날아올라 잡는 사람에게 그 바루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거기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교의 수행자가 있었으나 빈두로가 신통력으로써 공중에 날아올라가서 이것을 손으로 잡았다. 이 말을 들은 불타는 빈두로를 매우 꾸짖고 "대중이 보는 앞에서 신통력을 과시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하였다.



밀교(密敎)란 의식(儀式)을 주로 한다 정통밀교(正統密敎)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

대제(大抵) 신통력이나 번뇌가 없이 정신이 통일된 초능력적인 경지에서 가능한 것이며 특히 밀교의 진언(眞言)지송(持誦)으로써 더욱 가능하지만(취물(取物), 축지(縮地)등) 그러한 경지까지 정진(精進)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밀교의 삼행행(三密行)은 반드시 그 진언(眞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 근기(根機)가 약한 수행자들 자신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그 주변의 사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예: 총지종의 諸般神通妙有 등)

3. 정통밀교(正統密敎)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 경전(經典)의 종류를 소승과 대승 밀

교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소승(小乘)에 속하는 장야환경, 장부경전 중에도 대회경(大會經)과 같이 밀교적인 것도 있고 파리어 성전 가운데는 밀주(密呪)도 있다.

또 초기 대승경전에 속하는 법화경은 다라니를 설했고, 본연부에 속하는 방광대장엄경(普曜經)도 밀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밀교적이라고 해도 밀교가 아닌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통력이나 주문(呪文) 등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類似)밀교다. 바른 밀교는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조화(造化)하여 파악한다. 특수한 것 가운데서 일반성을 인식하고, 개개의 류(類)에서 실현(實現)한다. 개개의 인간은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인간과의 관련을 가지고 존재하므로 이것을 밀교에서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고 한다.

또 인간과 자연계가 따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연계는 인간에 의하여 실현 된다.

어느것이 어느것에 종속(種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종속(種屬)하는 것이다. 한조각 풀잎에도 우주 정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밀교에서는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의 법신체(法身體)로 보고 육대연

의 세계에 이론적(理論的), 실천적(實踐的) 실현이다.

가장 비근(卑近)한 본능적(本能的) 무반성(無反省)의 동물적 생활과 일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공리적 생활에서부터 윤리도덕의 단계를 거쳐 인간의식과 자연현상의 발전관계를 더듬으며, 소승에서 대승으로 고상(高揚)하면서 최후에 절대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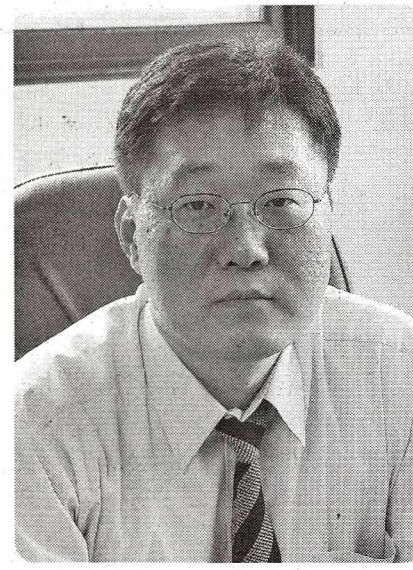
따라서 밀교 가운데에는 가장 저급(低級)한 욕망(欲望)과 가장 숭고(崇高)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잡연(雜然)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저마다의 곳에 있으면서 전체가 일대조화를 구성하여 일대교화국을 연주하는 것이다. 잡음(雜音)이나 불조화음(不調和音)도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요소(要素)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원시적인 생활로부터 가장 발달한 차원이 높은 사상과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도중의 모든 단계를 극복하고 절대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밀교다.

밀교는 인도불교에서도 중관파와 유식파의 당당한 귀족이었다. 즉 소승 대승의 모든 교의와 실천을 밟은 뒤에 비로소 밀교가 성립되는 것이다.

비유하면 중교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듯 소승 대승의 모든 교의를 배우고 또한 실천한 지만이 비로소 밀교에 들어가게 허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밀교의 정통을 전해 받은 우리 진언밀교에서도 또는 티베트의 라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마교에서도 구사, 중관, 유식 등의 일정한 과정을 다년간 학습한 후에 비로소 밀교를 배우는 것이 허용된다. 이때문에 밀교를 최상승(最上乘), 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총학연구원)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편두통 (1)

편두통은 혈관성 (vascular) 두통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인류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알려졌던 병이며, 어원은 'Hemicrania' 라는 희랍어에서 유래한다. 많은 두통환자 또는 일반인들이 '자신은 편두통이 심하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으나, 흔히 이런 환자들은 편두통이 아닌 심인성 (psychogenic) 또는 긴장성 (tension) 두통인 경우가 많고, 병원에 안

오고 약국을 찾는 환자도 아주 많으며, 이들은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다 두통이 만성화되거나 별 약효를 보지 못할 때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된다. 최근 편두통의 원인과 발생기전이 점차 규명되면서, 치료 또한 많은 발전을 하여 여러 효과적인 약물치료 방법이 개발되었고, 계속 새로운 치료약물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한가지 약물만으로 편두통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편두통 환자 개개인마다 효과적인 약물의 종류와 용량이 다르고, 또 같은 환자에서도 약물의 효과가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어렵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약물 자체가 두통을 유발하거나 또는 두통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으므로 재발성이고 만성적인 심한 두통 환자는 전문의의 진찰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 편두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생긴다. 미국의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전체 여자의 15-30%, 남자의 3-13%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연령에서도 편두통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성별차이없이 약 5%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편두통에 대한 역학적 연구통계가 없어 잘 확실치 않지만, 편두통은 전세계의 어느 인종에게나 흔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서양인들의 편두통 유행률과 별로 다르지 않게 흔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자 편두통 환자는 생리 전에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심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50세 이후 또는 폐경 이후 편두통이 감소하거나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 편두통이 50세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환자에서는 다른 원인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아주

중요하다. 편두통은 삼염색체 우성형태로 유전되기도 하는데 대개 약 50-60%의 편두통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으므로 병력 청취 시 이러한 정보는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에서는 심인성 또는 긴장성 두통이 편두통과 결합해 복합적인 양상의 두통을 보인다. 또한 여러 스트레스와 결부시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치료에 있어 이 문제가 잘 규명되어야만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가락 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Advertisement for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featuring the clinic name in Korean and English, and a photograph of the building.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Advertisement for Kim Jang-gyu, Director of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including a portrait and a list of his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dvertisement for the clinic's location and hours, including a map showing the clinic's location at 185 Songpa-dong, Songpa-gu, Seoul.

풍경소리

무엇을 찾느냐

어느 산 속 조그마한 절에 노스님이 꼬마스님과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스님께서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꼬마스님이 노래를 부르며 물을 담으려는데 우물에 달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저 달을 길어가면 스님께서 좋아하실 게야! 꼬마스님은 우물에 떠있는 달을 조심조심 담았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
 "달을 길어오느라고요"
 꼬마스님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물병을 따랐습니다.
 "어? 이상하네, 스님, 왜 달이 안 나오죠?"
 꼬마스님이 자꾸만 물병을 기울이고 들여다보는데도 노스님은 그저 말없이 웃기만 합니다.

- 염준성/한양대 강사

그림자 놀이

어떤 사람의 정원에 크고 넓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드러누워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거나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석공이 바위에 불상을 새길 것을 권하기에 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무심코 바위에 드러누웠다가 자신의 행동이 어쩐지 불경스럽게 생각되어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위는 고귀함도 속됨도 없이 옛날 그대로인데,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지금 그림자놀이에 열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문운정/수필가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호두나무 과수원 주인이 어느 날 천신같이 밧을 밧다.
 "일년 동안 콧은 날 없이 좋은 날만 내려 주십시오."
 그의 소원대로 일년 내내 청명한 날만 계속 되었고, 대풍년이 들어 과수원 주인이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호두 안에는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않았습다.
 그가 천신에게 항의하자, 천신은 대답하였습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 라네, 알맹이란 폭풍우 같은 시련과 목이 타는 가뭄과 고통이 있어야만 머무는 것이라네."

- 맹관자/수필가

나를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지키는 것

스승의 어깨 위에 긴 대나무 막대가 세워지면, 두 제자가 그 꼭 대기에 올라가 묘기를 부립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묘기이지만 오늘날라 두 제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스승님, 저희들이 떨어져 죽거나 다치는 일은 스승님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실수없이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보호해야겠지만, 내 평생 쌓아온 이 묘기의 인생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들 손에 달려 있다. 너희들도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각자가 실수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이용범/소설가

원정 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교

글:그림/정수일

-반야심경편 제 44화-

허허허... 무외시를 공부 하시더니 금방 얼굴이 환해졌군요.

경의 뜻은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다. 모든 뒤바뀌고 꿈과 같은 헛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최상의 열반에 들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심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동상 구경열반" 까지를 공부해 볼까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각자님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돈입니다!

중생들은 다들 자신만의 원하는바와 그것에 대한 가치부여가 다르게 마련이죠.

허어... 이런..

옛날 도자기를 무척 좋아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오아아~ 안돼!

뭐야?! 이 식은 맘은... 전장에서 백만 대군을 지휘하며 죽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내가 도자기 하나 때문에 식은 맘을 흘리다니.....

헉!

하마터면 갯 번 했구나!

걸림이여 멀리 떠나라!

아이고~

그래도 저는 돈이 좋아요.

저도요.

오로지 돈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돈이 걸림이 되어 돈이 제일 무섭게 되고 돈이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통상을 갖게 되며 결국 한 세상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은 곧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물(장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득실(得失)을 초월한 노력하되 집착이 없는 무소독의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음마니반메흠!

헤헤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지.

정수일유포퍼 -> <http://home.paran.com/octago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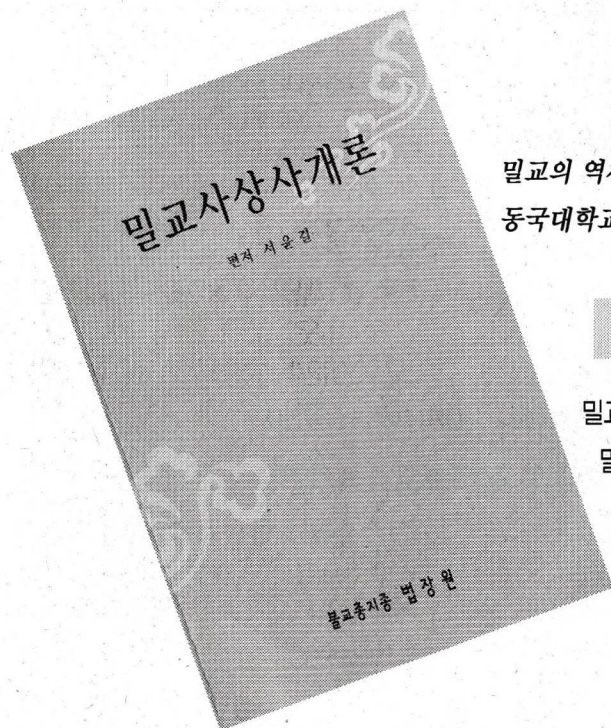
이달의 명상

마음발을 가꾸는 일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의 남산에 있는 바라문촌으로 탁발을 나가셨다. 마침 발을 갈고 씨 뿌리는 봄철이었다. 농사일로 분주한 가운데 잠시 쉬며 새참을 배급받고 있었다. 이 마을의 대지주인 바라드바자가 일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부처님도 농부들 틈에 서서 당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평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놓고 먹는 사람들로 좋지 않게 생각해온 바라드바지는 "사문이며, 여기는 밭갈고 씨 뿌리는 자가 아니면 음식을 줄 수가 없소이다. 그러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음식을 주겠소."
 이에 부처님은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느니라"고 답하셨다.
 바라드바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대들었다. "뭐라고요? 지금 밭 갈고 씨를 뿌린다 했소? 나는 당신이 소를 끌거나 쟁기와 췌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도 거짓말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시길 "마음은 나의 밭이요,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라. 지혜는 밭을 가는 나의 쟁기이고, 날마다 악업을 뽑아 없애고 선업을 쌓으니, 이것이 밭의 잡초를 뽑는 감매기라. 내가 타고 다니는 소는 정진이니, 나는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감매의 결실을 거두노라."
 이에 바라드바지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우유죽을 바리때에 가득 채워 공양하면서 말했다. "부처님이야말로 밭을 가는 분이요, 중생들에게 열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훌륭한 농부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농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밭은 일생 동안 순간 순간마다 쉬임없이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밭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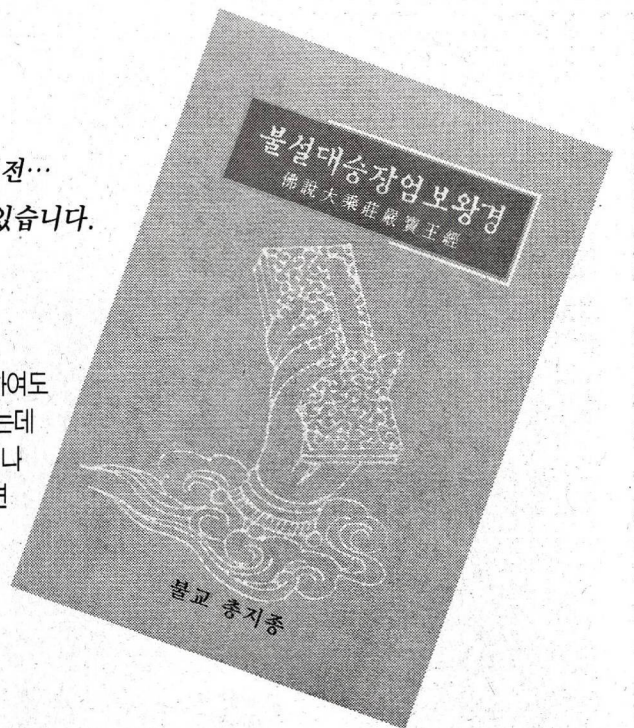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배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밀교수행의 원리

밀교실천과 삼밀행

밀교의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실천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충분히 자각하여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방법에 유가사들의 직접체행에서 얻어진 수행의 비결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밀교의 수행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불교의 어느 단계의 수행법보다도 뛰어난 극치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수행법의 기본적인 것이 삼밀행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인간의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손, 발 등의 신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 그리고 마음의 활동이다. 이러한 구분은 불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신(身), 구(口), 의(意)의 삼업(三業)으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이러한 삼업을 '삼밀'이라고 부른다. 밀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 그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유가의 관념에 의하여 법신불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경지에 들어서면,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법신불의 활동이 아닌 것이 없으며, 그것이 그대로 진리가 된다. 이것이 곧 '당상즉도(當相即道)'이며 '즉사이진(即事而眞)'인 것이다.

'당상즉도, 즉사이진'이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다. 다시말하면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세계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신체적 활동이며, 모든 소리는 법신불의 언어적 활동이며,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그대로 법신불의 심적인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무명과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은 이러한 법신불의 작용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밀교에서 신, 구, 의의 세가지 작용을 단순히 삼업이라고 하지 않고 삼밀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밀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개발하여 자기 가 부처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무명과 악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의 구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 곧 삼밀행이다.

즉 법신불의 신, 구, 의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자기 몸과 의식에 나타내는 바 이것이 곧 삼밀행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인계를 맺는 신밀,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는 구밀, 마음으로는 정신을 집중하여 본존을 떠올리는 의밀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밀수행의 반복으로 법신불과 자신을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즉신성불을 이루는 것이다.

1) 신밀과 결인

삼밀행에서 신밀에 속하는 것을 통틀어 인계(印契)라고 한다. 인계는 결계 또는 수인이라고도 하며 생략하여 인(印)이라고도 한다. '인'이란 산스크리트어로 무드라(mudra)라고 하며 인장, 표시 등의 뜻이 있다.

삼법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면 교리의 가

치, 규범 등을 뜻한다.

즉 손이나 손가락, 혹은 지물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인계라는 뜻이다. 단순히 손가락만 사용하여 인을 맺는 것은 수인 또는 결인이라하며, 연꽃이나 칼, 염주 등, 규범 등을 뜻한다.

즉 손이나 손가락, 혹은 지물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인계라는 뜻이다. 단순히 손가락만 사용하여 인을 맺는 것은 수인 또는 결인이라하며, 연꽃이나 칼, 염주



등의 지물을 사용하여 인을 맺는 것을 결인, 혹은 수인이라 한다. 수인과 결인을 아울러 인계라 하는데, 인계를 인상 또는 밀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인계는 곧 부처나 보살의 깨달

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불상에서의 손 모양이 각각 다른 것도 부처나 보살의 깨달음의 내용이나 중생을 향한 서원 등 불, 보살 등의 각자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밀교에서 수행자가 인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법신불의 비밀한 진리의 세계를 나의 몸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진리를 자신이 직접 체득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계는 어디까지나 진리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옛날부터 합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티베트의 밀교 사원에서는 불상의 수인을 엮은 천으로 가려 놓은 것이다. 수행자가 밀법을 행할 때에 자신으로 결인을 옷소매로 가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진언에서는 이러한 인계의 전수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인계를 배우는 것은 배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자격이 있는 스승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아야 하며, 근기가 얇은 자에게 합부로 공개하여 도리어 화가 미치는 일이 없도록 아무에게나 합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2) 구밀과 진언

구밀에 해당하는 진언은 다라니 혹은 주(呪)라고도 하는데 보통 산스크리트의 소리를 그대로 표시하며, 그 의미가

합축적이고 상징적인 말이다.

진언은 "진실한 말"을 의미하고 이것은 제불보살의 깨달음의 경지와 그들의 활동, 그리고 중생구제의 서원을 나타낸 신성한 말로서 밀교의 수행법을 이루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밀교를 다른 시기의 불교와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mantra)'라고 하며, '사유한다',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원래는 '신의 덕을 기리기 위한 말'을 의미했으나 밀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다.

다라니는 '지(持)라든가 총지(總持)'로 한역되는데, 이러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라니는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또한 주(呪)는 산스크리트의 비다야(vidya)를 한역한 것으로서 '명(明)'이라고도 한다. 주는 불타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도재래의 신앙에서 이 주는 그 말이 지닌 진실성으로 인하여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것으로 밀교에서도 진리를 함축한 말로서 간주되어 합부로 해석하지도 않으며, 그 신성함과 신비함으로 인하여 대중교화와 수행에 필수적 항목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진언이나 다라니, 주는 밀교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불성을 밝히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으로 법신불의 진리의 세계가 함축되어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간주하고, 이의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의 참된 모습을 밝히고 법신불의 세계를 자신의 심신 위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의밀과 삼마지

삼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

가 삼마지(三摩地)이다. 삼마지는 산스크리트 samadhi의 음역으로 원래의 뜻은 '한 곳에 놓는다'는 말이다. 삼마지는 등지(等持)라고도 번역되며 흔히 삼매라고도 한다. 독도삼매, 바둑삼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거나 집중된 상태를 말한다. 『구사론』에서도 "삼마지란 이른바 심일경심(一心一境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모든 사유평과 어지러움을 때리는 것으로 불교수행자들의 기본적인 실천수행으로 중시되어 왔으며, 불교에서도 근본불교 이래 선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대승불교에서도 다라니의 지승과 함께 삼매, 등지로 불리는 삼마지의 수행은 보살의 수행에 필수적인 과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밀교에서는 이 삼마지의 수행을 더욱 발전시켜 신밀, 구밀과 더불어 삼밀행의 하나로 의밀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일치시켰다.

특히 밀교의 삼마지가 여타의 삼마지와 구별되는 것은 단순히 정신집중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방편을 동원하여 삼마지에 이르는 것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었음 뿐 아니라, 거기에 철학적 의미를 더하여 우주의 본질을 깨닫고 법신불의 재능의 경지를 스스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마지의 하나인 아자관에서는 삼마지의 대상으로 '아(A)'자를 종교적 실재로서 그리고 법신의 상징으로 승화하여 우주의 실체를 드러내는 방편문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 대원론관이나 자륜관, 오자엄신관, 오자성신관 등 밀교 특유의 여러 가지 삼마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의밀에 해당하는 것만을 따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신밀, 구밀이 아울러 삼밀행으로서 그 효과를 증대시킨다.

정보 다이제스트

12월 31일자정 시계1초뒤로

올해 12월 31일 밤 12시 직전에 전세계 시계에 1초를 더 늘리는 윤초(閏秒)가 실시된다고 영국 일간지 디펜더트가 보도했다. 가장 정밀한 시계로 알려진 표준시계인 영국 그리니치의 원자시계는 12월 31일 밤 23시 59분 59초에서 0시 0분 0초로 넘어가기 직전 23시 59분 60초를 삽입해 1분을 '1초'로 만든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과학자인 피터 휘버리는 "1초의 길이는 18세기와 19세기 측정된 지구 자전 속도에 따라 규정되지만 최근 조수의 영향으로 지구 자전이 느려지고 있다"고 윤초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원자시계는 정확하게 때문에 현재 지구 자전보다 1초 빠른 상태다.

휘버리는 "지구 자전 속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에 1초를 더하는 것"이라면서 "시간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로 수천년이 지나면 대낮에 시계가 한밤중을 알리는 이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초가 늘어나는 게 처음은 아니다. 1972년 이후 97년까지 22회 윤초를 실시했다. 지구 자전이 빨라지면 원자시계에 1초를 빼는 윤초를 실시해야 한다.

네티즌이 찾아낸 생활 속 일본말

'오케바리', '무대보', '다데기' 등도 일본말이었어? 국가보훈처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4일~10일 네티즌을 상대로

2020년 한국인 평균수명 81세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엔이 최근 발표한 주요국가 평균수명 추이에서 한국의 올해 평균수명은 77.9세로,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82.1세), 이탈리아(79세)에는 뒤졌으나 미국(77.5세)보다는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71.4세에 그쳤다. 2020년이 되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81세로 일본(84.7세)보다 여전히 낮으나 이탈리아(80.4세)를 추월하고 미국(78.9세)과의 격차를 더욱 벌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 2030년에는 평균수명이 81.9세, 2050년에는 83.3세로 일본(86.3세, 88.1세)에 뒤지나 이탈리아(81.2세, 82.5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앞서 최상위권 장수국 위치를 다질 것으로 예상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005년 74.8세, 2020년 78.2세, 2030년 79.2세, 2050년 80.7세로 예측됐고, 여성은 같은 시기에 각각 81.5세, 84.4세, 85.2세, 86.6세로 남성보다 훨씬 오래 살 것으로 전망됐다.

자원봉사 아직은 "인색"

젊은이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저소득층보다는 중상류층이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5명중 1명꼴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나 선진국(30%이상)에 비하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크게 낮았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1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50대이상 29%, 40대는 27.8%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30대는 21.8%, 20대는 21.5%에 그쳐 젊은 층일수록 자원봉사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다"가 가장 많았다. 자원봉사자들의 한 달 수입은 3백만원 이상이 40.2%로 나타

나 중상류층의 자원봉사 참여가 2002년(23.5%)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28.7%로 가장 많고, 이어 사무, 기술직(20.8%), 자영업자(14.5%)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7.7%)이 남성(42.3%)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사무, 기술직이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2년 13.8%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기업의 사회공헌이 과거 급진적인 기부에서 자원봉사 참여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49%, 중소도시 거주자 39%로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도시민이었다. 한편 국내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2년 16.3%에서 올해는 20.5%로 늘었으며 자원봉사 시간은 주당 평균 1시간이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3조 1천 7백억 원으로 2004년 국민총생산의 0.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이 당노성 안질한 역제"

중앙대 의대 김재찬 교수팀이 공의 천연성분은 당노성으로 인한 망막증 등과 안과 질환을 억제하는데 특효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교수는 '피니플' 성분을 당노성에 투여한 결과 쥐의 혈당이 저하되고 백내장과 망막증 등 당노성 안질환의 발생 및 진행이 위축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당노성 백내장과 망막증은 당뇨환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망막증은 국내 성인 실명원인 1위의 질환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공의 천연성분을 이용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교수는 "공은 이미 당뇨환자의 눈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공의 효능 성분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해 치료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시량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채원으로 월 5만원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채일 경우 회계팀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기획특집 제6회 불교 총지종 경로법회 이모저모

부처님 세상, 즐거운 하루

경로법회 종령 법어



효강 (총지종 종령)

초가을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문득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계절에 연로 보살님들을 모시고 경로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정신과 물질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회가 현대화, 산업화되어감에 따라 물질적 풍요는 날로 발전해 가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공(空)의 세계이며, 정신교육체계의 근원은 바로 공(空)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란 내안에는 미묘한 것이 있다는 말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은 공(空)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허물을 참회하고, 깨쳐서 극락왕생하는 불생불멸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행복과 불행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각자 부처님의 법을 깨쳐서 허물을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생불멸의 말처럼 보살님들께서도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정신만은 아직 총명할 것입니다. 정신이 총명하듯 보살님들은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세상에서 젊은 마음과 육체를 유지하도록 해탈을 이루시어 모든 자녀들이 부처님의 전당에 나와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력이 온 가족에게 늘 함께 하도록 발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십이장경』과 『잡아함경』을 보면 인신난득(人身難得)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 물위로 올라와 물위에 떠 있는 나무토막의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과 같으며, 불법을 만나기는 수천겁의 인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 매일 참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며 생활하여 내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장을 소멸하여 불국정토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 보살님들 모두가 부처님의 진언공덕으로 느슨해진 심정과 환란을 참회와 육행실천으로 해탈을 이루시고 가족제도에 조금더 노력해 주시고, 굳건한 신심으로 연습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지종의 발전을 염원하는 각교구 지회장과 보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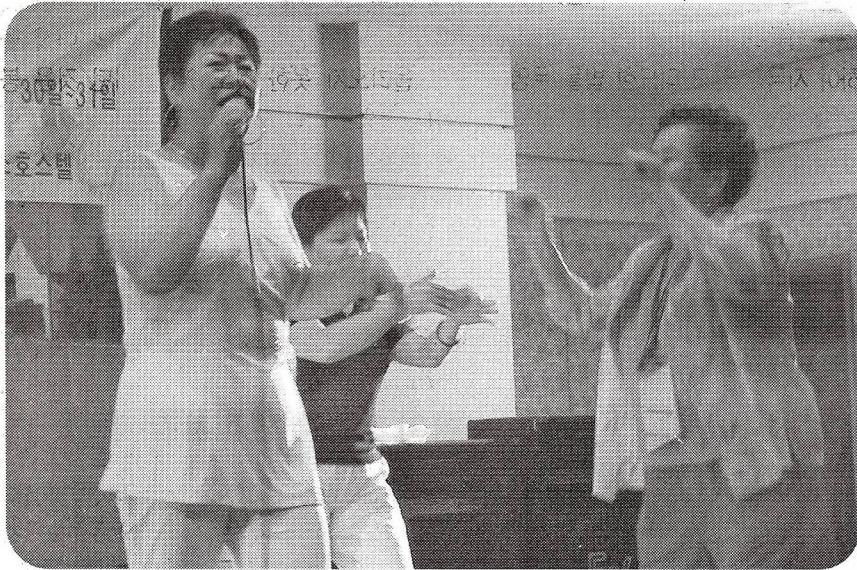


언제나 자비롭고 편안한 '옴마니반메훎' 염송소리...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중오속에서도 중오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 속에서도 질병 알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들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쾌락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자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의 어르신들 공양 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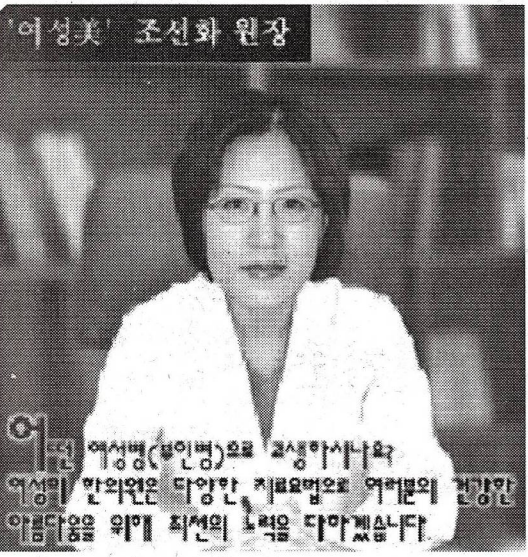
병실이의 노랫가락에 춤이 덩실덩실.



나문아의 매력적인 못짓, 정말 나문아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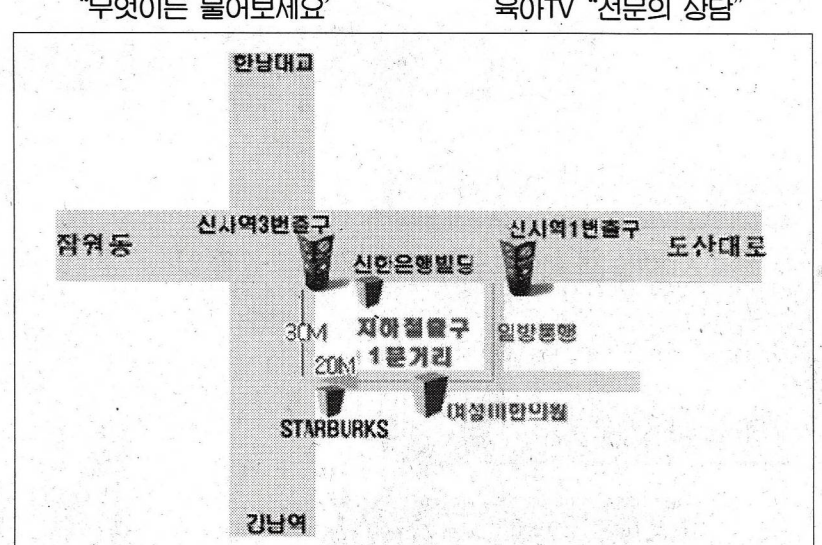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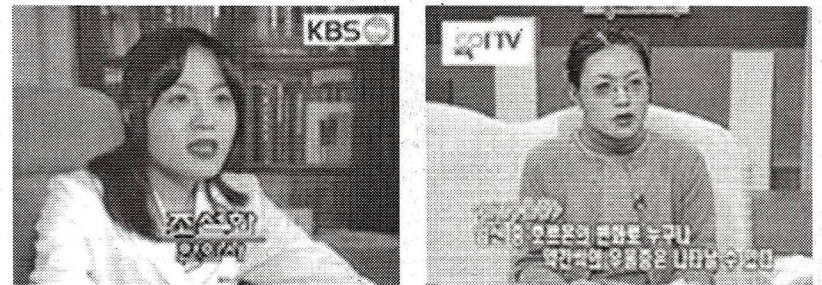


불쌍한 각설이 아줌마 도와줘...



여성美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 경 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 신 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 후 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교계소식

“중생의 고통을 다 받으러 왔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원적 영결식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스님이 지난 9월 11일 오전 3시 50분경 심장협심증으로 세수64세, 법랍45세로 원적하였다.

원적에는 법장스님은 1960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82년 총무원 사회부장, 1984년 재무부장, 1992년 제7교구 수덕사 주지, 1998년 전국 본사주지연합 회장 등을 거쳤으며, 2003년 3월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5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치러진 영결식에서는 우승 총지종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원로대덕 스님, 정계 각계 인사 등 3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

다. 이날 영결식은 명종·개식·삼귀의 영결법요·행장소개·육성법문·영결사·법어·추도사·조사·조가·헌화·조전 및 조화소개, 이운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영결식이 거행된 조계사 대웅전 하늘에는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원상의 모양을 한 찬연한 무지개가 떠올라 법장스님의 원력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장의위원회 위원장 현고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은 종단 내적으로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 냈으며 우방국가 수반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며 “돌아보시는 눈길 속에 아직 못다 이룬 원력이 남아 있음

확인하신다면 화장할 때에는 잠시만 머물다가 원생으로 다시 오십시오”라고 애통해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의 법어를 대독한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스님은 “종단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고 원용과 화합으로 종풍을 높이고 불조가 전승한 법등을 빛내기 위해 정진하던 그 모습이 눈에 밝힌다”며 “천 년묵은 돌 호랑이가 기린을 낳으니 외백에 은뿔이 오색빛으로 찬란하네”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생사거래란 사바세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지 누구나 당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스님을 영결하기가 아직은 너무나도 섭섭하고 안타깝기 때문”이라며 “스님이 그토록 염원했던 불교중흥과 정토건설의 꿈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의메시지를 대독한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은 “대중사계에서 한국불교의 선택을 정립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 오셨다”며 “최

근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와 협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법장스님의 공적을 기렸다.

이밖에도 용주사 주지 정락·전국 선원수좌회 대표 혜국·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태고종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불교계 대표 스님들과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권한대행·문화상 열린우리당 당의장·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명박 서울특별시시장 등 정관계 대표자들이 조사를 낭독했다.

영결식에서 법장 대종사와 결연을 맺은 후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최예슬(13·서울 효제초 6)아이 법장 대종사를 추모하는 편지를 낭독해 참석 대중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최양은 “아직도 살아 계실 것만 같고 ‘예슬아’ 하고 불러주실 것만 같은데 돌아가셨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자꾸 날 것만 같았다”며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신기증을 통해서 살신성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신 스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장을 앞세운 법장 대종사 위패와 유품 등이 오열하는 3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2년 7개월동안 주석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한 바퀴 돌아 출가본사인 수덕사로 향했다. 조재는 수덕사에서, 49세는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인류사회의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 10월 24~26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제 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 대회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범어사와 삼광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9월 8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제 4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장소 및 행사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24일 오후 4시 롯데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제 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는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환영만찬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10월 25일 오전 10시 부산 범어사에서 3국 불교대표자들과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열리며, 오후 2시부터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인류사회의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또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공연이 2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한중일대회는 10월 26일 낮 12시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문화관광부 장관 오찬회를 끝으로 회향된다.

아함경 이야기



황명서사

나는 이 연기라는 법에 의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법이야말로 내가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며 스승으로 섬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차라리 입멸해 버릴까하는 생각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진리를 알아들을 사람도 없으니 헛된 수고로움을 피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해 버릴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혼자만 가슴에 담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면 불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들도 여전히 무명 속에서 끝없는 괴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순간에 사함파티라는 법전이 부처님의 마음속을 알고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깊고도 미묘한 법을 깨달으시고도 설법하지 않으시려고 하는구나. 애 세상은 멸망하는구나. 여래·응공·정등각자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소멸하고 말겠구나. 법천이라는 것은 원래는 브라만의 신으로서

최초의 설법 (2)

또 (마하박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십시오. 선사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눈이 먼지로 가려져 있지 않은 중생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나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그래도 순수하고 일ма간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설법한다면 진리에 눈을 뜰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바른 법을 듣지 못한다면 타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달라는 범천의 간청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대의 말이 옳다. 나는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 내가 얻은 법은 지극히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에게 설해 준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번거로운만 더할 것이니 차라리 설법하지 말자. 고 생각했다. 나는 무수한 이승·거이래 게오르지 않고 부지런히 힘써 위없는 수행법을 닦은 뒤에야 이 얻기 어려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탐진치에 사로잡힌 중생들에게 설하여도 받아들여 행하지 않을 것이다. 부질없이 나만 힘들게 될 것이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미묘하여 세상일과는 반대되는 것이니 욕심에 물들고 어

탐착과 분노에 물든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중생들은 근기가 다르지만 미묘한 진리를 이해함

인도 전통의창조신인대 불교에서는 불법을 보호하고 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경전에서는 가끔은 부처님의 마음 속 변화를 묘사하기 위하여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전은 부처님 마음 속의 어떤 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도달한 진리를 지금 결코 드러낼 수가 없다. 탐착과 분노에 물든 자들은 이 법을 원만히 깨달을 수 없다. 윤회를 초월하여 지극히 깊고 미묘한 법을 무명애 기리고 탐착에 물든 자들이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설법하는 것을 포기하시려 하자 범천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굽혔던 팔을 펴고 펴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열린 부처님 앞에 나타나 오른 쪽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적당한 때를 보아 설법하십시오. 지금 중생들은 번뇌가 적고 재근(諸根)이 예리하며 공경심이 있어 교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구제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두려워하므로 그들을 교화하신다면 악법을 멸하고 선도를 생겨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식은 중생들은 믿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범천이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설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범천왕은 거듭하여 간청을 합니다. 범천의 거듭되는 간청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니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랐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중생들의 모습을 연꽃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꽃에는 붉은 연꽃, 흰 연꽃 등 여러 가지의 연꽃이 피는데, 어떤 연꽃은 진흙에서 갓 나와 아직 물위로 올라오지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봉오리가 수면 위로 갓 올라온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아직 활짝 피지 못한 것도 있지만 모두 다 물에 젖지 않고 쉽게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중생들도 제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이 설하시는 진리를 들으면 이해하고 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침내 설법하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범천권청’의 설법입니다. 깊고 미묘한 진리를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마음 속의 갈등과 결심을 범천을 등장시켜 신화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진각종-조불련 무역사업 합의 조선불련무역회사 생산품 수입 판매

진각종이 조선불교도연맹과 무역사업을 전개한다.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는 8월 23일~27일 평양을 방문, 조선불교도연맹과 회담을 갖고 조불련 산하의 조선불련무역회사에서 생산·가공한 물건의 수입 및 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진각종은 조불련이 평양회담에서 무역회사 생산품의 수입 판매를 제안함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종단 내부 결의 과정을 거쳐 조불련에 통보할 예정이다.

진각종 방북단에 따르면 조불련 산하의 조선불련무역회사는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문을 연 조선불련무역회사(사장 정서정 조불련 서기장)는 평양시 낙랑구역 낙랑 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4500여 평의 대지에 건평 1500여 평 규모로 생산품을 납출에 수출할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 장용철 사무처장은 “무역회사는 현재 냉면 등 식품류와 과자류 그리고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불련은 북측 여러 사찰의 생산품까지 무역거래 품목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진각종과 조불련의 평양회담 주요 의제였던 협영농장 개설 관련 논의는 남북 당국간 농자재 및 종자 지원 등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유보됐다. 또한 내금강 장안사 복원 관련 논의도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용철 사무처장은 “남북 당국간 농업분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협영농장 개설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처장은 이어 “장안사 복원 문제는 북측에서 기존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으며, 내금강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 구체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항주, 황산, 구화산 4박5일 즐거운 여행을...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최상의 친절.

2005년 8월 ~ 12월(20명 기준)

- 첫째날 - 인천출발, 항주 도착후 영은사관광
- 둘째날 - 중부 최대호수인 서호(유람선), 항주의 역사문화 정자사, 성황묘, 성황각, 오산, 항주의 용정차 농원견학
- 셋째날 - 운곡사, 황산의 최고봉인 연화봉, 황산의 절경 광명정,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라 불리는 비래석, 배운석, 사자봉, 청량대, 시신봉 등 황산의 절경 관광
- 넷째날 - 구화산의 지원사, 육신보전, 화성사, 고배경대, 등 구화산 관광
- 다섯째날 - 항주출발, 인천도착

LTC (주)엘티시여행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웅비어천가 325
전화 : 02-734-9230 H/P : 011-204-7708
담당 : 함 명 길

아제아제바라아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김용주(지정) (총지종보사)

“곧은 나무는 서까래로 쓰이고, 굽은 나무는 울타리로 쓰이고, 넓적한 돌은 주춧돌로 쓰이고 울퉁불퉁한 돌은 주춧돌 발집대로 쓰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상에는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각자 불성을 가진 존재로 모두가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길가에 나무는 한 줄기 풀잎도 동물들의 먹이로 쓰이고, 조그마한 돌맹이도 집을 짓는 자갈로 쓰이는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이렇듯 자연의 섭리는 생태계라는 체계를 유지하며 서로 서로 사생의 먹이사슬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지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평보다 타인의 행위에 비평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교의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은 참 “나”를 찾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가득 채우고 무릇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감로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활용하는지...’

아마 하루 동안 자신의 잘못된 허물보다 타인의 허물과 타인의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이야기로 소비하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농부는 들녘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조형물을 만들고, 수행자는 수행에 열중하며 자신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땀흘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스승은 중생교화를 위해 보살들의 경제해탈과 복덕지혜를 위해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보살들은 삼보를 존경하고 주위의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도반들을 돕고, 위로하며, 가

정의 안녕과 평화, 행복을 위해 열심히 정진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꾸준한 수행과 정진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은 살피지 않고 타인들의 허물만 보며, 타인의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 타인을 매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와 불신만을 초래하여 자신이 지은 인에 대한 과보로 나쁜 업보가 쌓여서 자신에게 고통받는 일이 생겨나곤 합니다.

수행자는 수행에 전념해야 가장 아름답고 해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행에는 등한시하고 타인의 수행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와 수행을 먼저 점검하고 올바른지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남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 항상 입에는 남의 허물만 들추고, 남의 잘못된 부분만 눈에 보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바르며 남의 생각과 주장은 수용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일수록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에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정성껏 돌보고, 자녀들은 부모와 어른들을 봉양하고, 젊은 사람은 어른들을 보살피고, 선배는 후배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받드는 일일 것입니다.

한번 타인이 미워지면 영원히 미워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리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일 쉬지않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며, 상대방이 아무리 밉고 원망스럽더라도 그러한 미움과 원망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진정한 수행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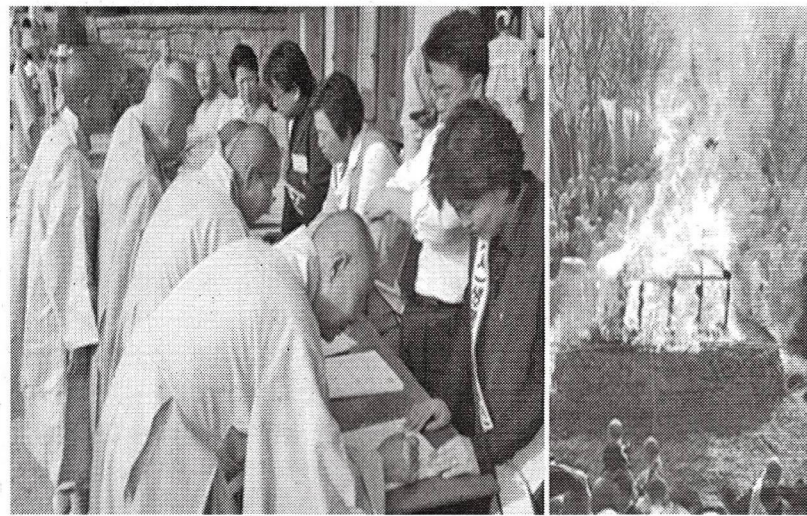
서로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상생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부처님 진담과 불자가 되도록 각자 마음자리를 닦는 수행에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참 ‘나’를 찾기 위해 꾸준히 용맹정진하고 그러한 서원이 승화되어 부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행동하여 중생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교계소식

사후 장기·시신기증 다비문화 새바람

법장스님 법구 동국대 일산병원 기증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법구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의료연구용으로 기증된 가운데 종단 스님들이 잇따라 시신기증 서약에 동참하는 등 다비문화에 일대혁신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법구 기증으로 불교계 여러 스님들과 사부대중 등이 조계종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

기증 서약에 동참했으며, 덕송총림 수덕사는 사중스님 2백여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다비전통을 이어나 승가에서 시신기증은 신성한 총적으로 받아들여져 법장스님 법구 기증이 결정되기까지 일부 스님들은 법구기증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나 법장스님의 생전 유훈과 뜻을 받들기 위해 법구기증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장스님은 한 때 심장동맥경화로 응급실에 입원, 치료받은 후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4년 3월 24일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고 불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장기기증 서약을 한 바 있다.

조계종 종단사에서 다비식 없는 영결식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법장스님은 “개인통장 하나 없이 마지막 남은 시신마저도 중생에게 회향하였으며, 지비보함에 가입된 보험금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게 됐다.”

기회실장 법안스님은 “법장스님이 평소 가졌던 큰 뜻이었지만 종단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 밝히며, 그 여파로 불교계에서는 장기기증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음종, 금강산 신계사서 통일기원 영산대재 북한동포에게 자비의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

“금강산의 자연은 그대로가 비로자나의 화신입니다. 전쟁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소서.”

남부 평화통일 기원 수록영산 재가 불행된 8월 30일 북한 금강산 신계사(주지 제정).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의 영가 천도법문이 금강산 계곡을 타고 울려 퍼진다. 관음종 각 사찰 주지 스님과 150여 사부대중들이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전쟁을 통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영혼 및 유족무주 인연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한 전투가 신계사 지역에서 벌어져, 수많은 남북한 군인들이 희생됐다. 천년고찰 신계사도 이때 불에 타 50여 년간 잿더미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에야 대웅전이 남북 불교계의 합심으로 다시 건립됐고, 지금은 만세루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불교의 세계화는 국제포교사 손에”

제6회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회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이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박 4일동안 해외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국제포교사 75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은 외국인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귀의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포교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1999년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문화체험은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종, 진각종, 원불교 국제포교사와 예비포교사들이 국제포교의 문해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불교의 국제포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관음사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약천사참배, 다도 및 연등체험, 한라산등반, 세미나와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총지종 관계자는 “국제포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으로 불교의 국제포교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실감했으며, 국제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세계속에 펼칠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에서 포교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험담들을 통해 불교포교의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불교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리틀야구단 창단

“불교엘리트” 체력과 공부병행

영남불교대학 어린이 리틀 야구단 “불교 엘리트” 창단식이 9월 13일 오후 8시 30분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렸다.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과 유영목 단장, 김현자 감독, 삼성야구단 이선희 코치를 비롯한 신도 학부모 등 약 300여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열린 창단식은 경과보고, 창단사, 우학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고, 우학 스님은 모든 야구 단원들에게 단주를 선물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우학 스님은 “리틀 야구단원은 앞으로 공부와 병행해 체력을 연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있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지랄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을 하고 단복과 클러브, 야구공 등 많은 지원을 해 준 삼성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앞서 유영목 단장은 창단사를 통해 “리틀야구단 창단이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스포츠를 통한 불교공부와 불교홍포의 전병으로서의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

이며, 운동장에서 뛰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코치 세고 덩치가 크지만 점잖은 함기리를 상징해 “불교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창단하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리틀 야구단은 유영목 단장, 김현자 감독, 조원진 코치와 28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었고, 2005년 7월 예비소집 이후 매주 토, 일요일 삼성 리틀 야구단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 리틀 야구단 “불교 엘리트”의 가슴에는 영남불교대학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다.

한편 삼성라이온즈가 영남불교대학의 날로 정한 9월 15일에는 영남불교대학의 동문과 신도 약 1500 여명이 대구시민운동장에 나가 삼성과 현대의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대구시민운동장에는 경기전 식전행사도 영남불교대학 풍물단과 사자후 남상 합창단, 가풍비가 여성 중창단의 공연과 회주 우학 스님의 시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 대 상 : 일반시민
-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10,000원
-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실지사 인정회” 장학금 전달 더불어사는 부처님 세상



총지종 실지사 인정회는 지난 9월 11일 실지사 서원당에서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이난주(신경여자실 교영진 경남도 교육감 '스님 비하' 공식 사과 9월 20일 조계종 총무원 방문

경상남도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13,14일 치러진 '2005년 경남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불교와 스님을 비하하는 속담을 예시문으로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출제한 사회과목 16번 문항 '중이 고기 맛을 알면 파리로 남지 않는다'와 '내가 종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 구나'라는 2개의 보기가 제시된 것. 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교영진 교육감 등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교영진 교육감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교 스님과 사회부장 정남 스님 등을 만나 "스님과 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9월 23일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고등학교)학생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주위의 모범이 되어 왔다.

총지사 요가수련생 한마음대회

“자연과 함께한 심신수련”

“초원에 부는 바람은 내마음을 상쾌하게 만지고, 들뜬에 지저귀는 푸른 풀잎들은 나와 일체가 되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불태우네”
총지사 요가수련원에서 수련하는 회원 10여명이 9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횡천으로 나들이를 갔다. 1시간이던 요가수련시간동안 서로 얼굴만 보기에 서먹서먹했던 이들이 오랜만에 서로간에 할 이야기가 많아져서였다.
이들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강원도 시골지역의 고즈넉한 마을에 위치한 금강산원 수련원에서 그동안 배웠던 요가를 복습하고, 명상체험, 자연과 하나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하반기 49일 화향일(7.15)에 실시하는 방생법회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복지행의 인간방생을 하기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실지사 인정회 최재숙 회장은 “부처님께서는 자비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사 인정회의 이러한 선행은 실지사의 행복이 될 뿐 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과 중생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류가 하나가 된 동체대미의 삶이 바로 부처님의 극락정토입니다. 앞으로 실지사는 부처님의 자비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간방생을 계기로 실지사 인정회는 젊은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두차례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실지사 인정회 젊은 회원들로 구성된 실지회에서는 두 달에 한번씩 주위의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서울경인교구도 인간방생의 일환으로 불우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고아원을 방문하여 고아 원생들을 위로하였다.

되기, 상호간의 고민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한상 요가선생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자연의 바람속에 날려보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정법을 체득하였다.
그러나 90여명이라는 회원들이 총지사 요가수련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에 적은 수의 인원이 참가하여 아쉬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한 시간을 마련하여 삶의 활력과 심신이 건강할 진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지난 9월 11일 새벽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협심증으로 갑자기 열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에 모든 불자들은 망연자실해야 했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펼치기 위해 몸소 불교의 평화와 개혁, 불교의 생활화, 실천화를 표방하며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서서히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열반하게 되어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장스님 열반 후 법장스님에 대한 수행력과 일화 등이

무소유의 법장스님

대에서 법장스님의 무소유의 생명나눔실천과 불교개혁을 이룩한 업적은 불교역사상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장스님의 극락왕생을 자심으로 발원합니다
(김철호/서울시 종교구 견지동)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사연은 법장스님께서 생명나눔실천 본부를 만들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법장스님의 법구도 동국대병원에 기증되어 후학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스님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왔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물든 현시

나도 한마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지난 9월 11일 새벽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협심증으로 갑자기 열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에 모든 불자들은 망연자실해야 했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행체험 24

불공은 원망심과 미움을 초월



박옥연 보살
(화음사 인정회 회장)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제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된 동기는 총지종 창종부터였습니다. 화음사 전신 정회 회장이셨던 어머니께서 부산 정각사에서 수행하시다가 진주로 이사를 오면서 진주에 총지종 사찰이 있었으면 하는 원력의 공력으로 진주에 화음사란 절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교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적극적인 교화로 지금은 으저 한 사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처럼 많은 불공을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영향과 지도로 불공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화음사의 발전을 위해 몸담고 있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공덕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시절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공으로 심적인 안정을 찾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은혜로 1남2녀의 자녀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어머니를 모시면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것, 주위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것, 건강하게 서예나 동양화를 그리며 사회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생겨난 원망심과 미움을 불공을 함으로써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총지종은 현교와 비교하여 새해불공, 월초불공, 자성불공, 49일불공 등 불공이 너무 많아 사회생활하면서 이러한 불공들을 다 지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는 옛날과 달리 결혼을 하고서도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사회생활하다보니 불공시간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불공법은 앉아서 하는 불공이라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있는 것에 적응이 되지 않아 불공이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공시간과 불공의 형태를 변화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적합한 불공법을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데리고 오면 불교라 하면서 불상도 없는 이상한 종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밑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불상이 없는 절을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불상을 봉안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 화음사 교도들 자랑할 점은?
화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가족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가족공동체는 화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화음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고 힘든 교도가 있으면 모든 교도들이 동참하여 도와주고 있으며, 교도들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친인척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재미있고, 웃음이 넘쳐나 절에 찾아오는 보살님들의 얼굴에는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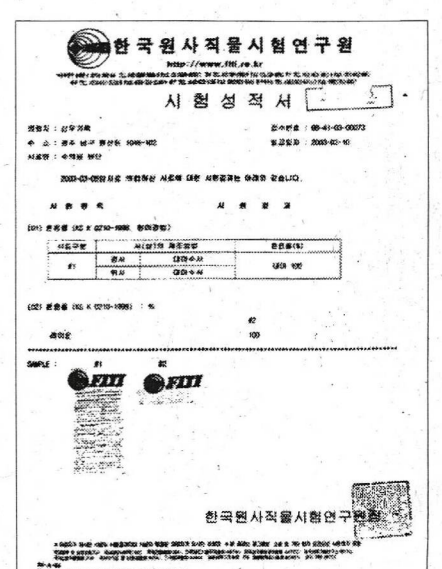
원망심과 미움을 불공을 통해 감사함으로 변화

젊은 세대들에게 적합한 불공법 개발로 포교활성화

▶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은?
우리 불공법의 좋은 점은 시시불공, 처처불공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절에 나오지 못할 때는 집에서나 차안에서 염주를 들고 불공을 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공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공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예나 동양화를 그리기 때문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주제로 글씨를 쓰면서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총지종 수행법의 좋은 점과 수정할 점은?
지금까지 불공하면서 우리의 수행법 같이 좋은 수행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만나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수행법을 널리 포교할 수 없음에 또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친구들을 제도하기 위해 절에

▶ 총지종 종단과 화음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화음사는 가정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여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좁은 공간에 교도들이 많으니 어려움이 더욱 많습니다.
종단에서는 화음사의 어려운 수행환경을 고려하여 소속히 신축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사원신축은 화음사의 스승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가장 큰 서원일 것입니다.
화음사 인정회 회장으로서는 보살님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있는 총무원과 보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의 건강과 안녕, 해탈을 위해 항상 몸담고진전해 주셨던 법성정사님, 정일해전스님, 법정정사님, 법지원전수님을 비롯하여 현 수행정사님과 자심관 전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孝는 만행의 근원... “진삼베 수의”로 孝를 실천하세요



수의(복옷)이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극락왕생할 때, 또한 조상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서 원단은 주로 진삼베를 사용했으며,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수의를 준비해 두시면 집안에, 우환과 삼재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누리다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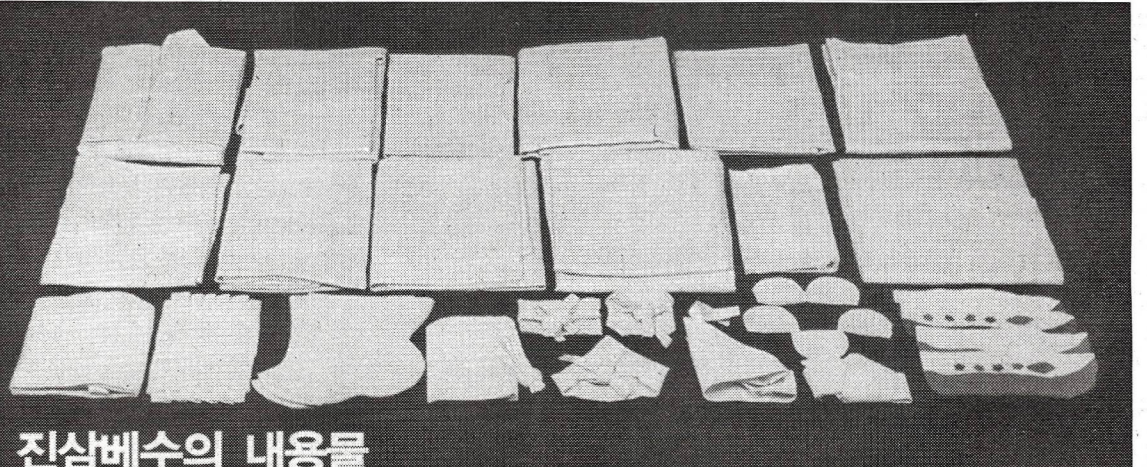
진삼베수의를 삼베(大麻)는 고유의 독특한 항균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예부터 조상님들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삼베수의를는 사부대중들이 입었던 수의로써 100% 진삼베(화순포) 220자를 사용하여 엄밀한 작업공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제작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수의내용 男: 도포, 도포머, 두루마기, 두루마기머,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대님, 행진, 천금, 지금, 장매, 땃배 (총23종) 女: 원삼, 원삼머,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속치마,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족두리, 천금, 지금, 장매, 땃배 (총22종)

무료제공 본 수의를 구입하시면 건, 완장, 행진 각 10장씩과 명정, 관보, 습신, 예단 등 부속물 일절 및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입는 상복을 가족수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의보급가격 120만원(3회 분할납부 가능) 결제방법: 온라인입금

연락처: 불교총지종 통리원 (02-552-1080~3) * 수익금은 사원의 만다라 봉안불사에 쓰여집니다.



진삼베수의를의 내용물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진엄엄송의 소원성취 실천수행도량

가을녘 풍성한 들녘이 넘실넘실 출렁대고, 흥겹게 들려오는 노랫가락에 덩실덩실 춤뜰씨가 절로난다. 진주성에서는 논개의 절개가 우러나고, 굽이쳐 흐르는 남강의 물줄기가 밀법도량 화음사를 부러운듯 쳐다본다.
항상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비로자나 부처님 진언의 공덕이 넘쳐나고, 노랫가락처럼 신명나고 흥겨운 진언도량 화음사를 찾아가본다.

화음사 연혁

화음사는 총기14년 진주시 장대동 2층 중 1칸을 임대하여 선지서원당으로 개설하였고, 총기16년에는 진주시 망경동 대지 209평과 건물을 매입하여 이설불사 한 후 화음사로 개칭하였다. 화음사에는 초대 법성정사와 정일혜전수가 교화하였고, 법정정사, 법지원전수가 교화하였으며, 현재는 수현정사와 자심관 전수가 중생제도와 교화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수현정사와 자심관 전수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생활실천으로 부처님의 지혜 증득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쌓는데 불과합니다. 백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

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접어줄 줄 모르면 보나마나입니다. 자기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의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하겠습니까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자신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마음 내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익어야 맛을 알게 됩니다. 수박 맛을 보겠다고 툭어저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맛이 느껴질까요? 그냥 짝 갈라서 먹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불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불공을 제대로 해보아야 불공의 맛을 알 수 있고, 불공의 공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번뇌와 근심, 걱정 등을 비워버리고 서원당 안에 나의 주인공 마음을 딱 맡겨놓으십시오.
세월을 살다보면 낯은 날도 맑은 날도 있듯이 마음에도 변화무쌍한 법이 있습



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접어줄 줄 모르면 보나마나입니다. 자기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의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하겠습니까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자신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마음 내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익어야 맛을 알게 됩니다. 수박 맛을 보겠다고 툭어저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맛이 느껴질까요? 그냥 짝 갈라서 먹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불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불공을 제대로 해보아야 불공의 맛을 알 수 있고, 불공의 공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번뇌와 근심, 걱정 등을 비워버리고 서원당 안에 나의 주인공 마음을 딱 맡겨놓으십시오.
세월을 살다보면 낯은 날도 맑은 날도 있듯이 마음에도 변화무쌍한 법이 있습

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접어줄 줄 모르면 보나마나입니다. 자기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의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하겠습니까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자신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마음 내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익어야 맛을 알게 됩니다. 수박 맛을 보겠다고 툭어저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맛이 느껴질까요? 그냥 짝 갈라서 먹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불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불공을 제대로 해보아야 불공의 맛을 알 수 있고, 불공의 공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번뇌와 근심, 걱정 등을 비워버리고 서원당 안에 나의 주인공 마음을 딱 맡겨놓으십시오.
세월을 살다보면 낯은 날도 맑은 날도 있듯이 마음에도 변화무쌍한 법이 있습

발원은 신앙의 에너지

『법원주립』에 “보살의 발원에는 오종이 있다. 첫째는 발심원이고, 둘째는 생원이고, 셋째는 경계원이고, 넷째는 평등원이고, 다섯째는 대원이다. 보살은 처음에는 다섯가지 보리를 내니 이것을 발심원이라고 하고 오는 세상에 중생을 위해 좋은 세계에 나기를 원하니 이것을 생원이라고 하고, 모든 법과 무량한 선근을 바로 관찰하고 경계를 생각하기를 원하니 이것을 경계원이라고 하고 오는 세상의 일체 보살이 일을 잘 거두기를 원하니 이것을 보살의 평등원이라 하며 대원이란 곧 평등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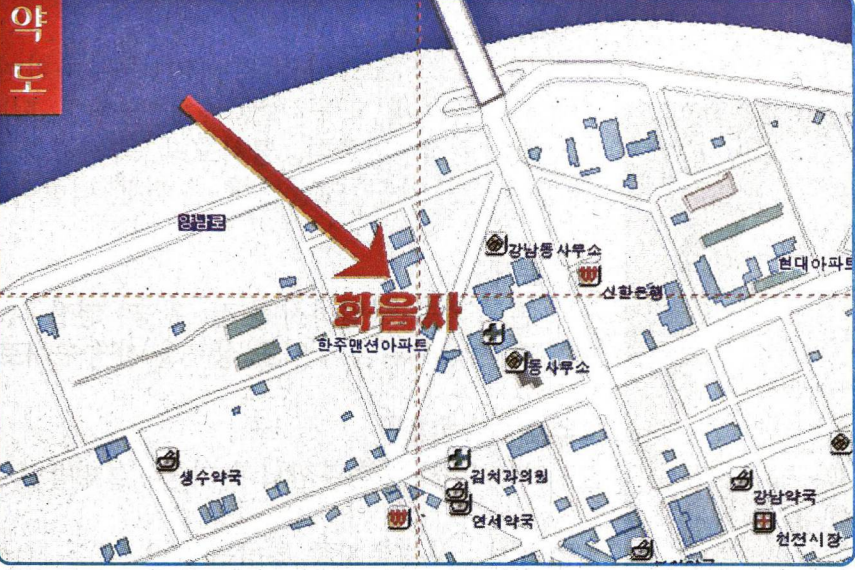
라고 보살의 다섯 가지 발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잡초가 될 씨앗, 덩굴식물이 될 씨앗, 작은 나무가 될 씨앗, 큰 나무가 될 씨앗 등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씨앗을 찾아서 심어보고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면 잘 자랄 것입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씨앗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나무가 조금 자라면 그 원인을 찾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렇듯이 발원도 또한 어떤 발원인지를 알고 발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발원이 성취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닭이 알을 품지도 않고 병아리가 되라고 기대만 한다면 결코 병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닭이 십 여일 동안 계속해서 알을 품고 온도를 맞추고 정성을 다 해야만 마침내 병아리가 되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원이라는 알이 깨어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합당한 행위와 노력을 하지 않고 발원이 성취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발원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정진해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과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는 곳에 오래 머물거나 그 사람에게 가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까이 있게 하고 떠나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발원을 성취하기 위해 발원을 성취해 줄 대상이나 중생을 찾아야 합니다. 발원에는 이미 이러한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원하는 사람은 발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지니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중생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보시의 원을 세우고, 중생에게 악업을 제거하기 위해 지계의 원을 세우고, 중생에게 모든 악을 여의게 하기 위해 인욕의 원을 세우고, 중생에게 계음을 없애주기 위해 정진의 원을 세우고, 중생에게 혼란과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선정의 원을 세우고, 중생에게 무지를 없게 하기 위해 지혜의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 육바라밀의 원을 세우는 자는 중생이 원하는 것을 보살펴주는 중생의 친한 벗이 될 것입니다.
참회와 발원은 불제자로서 부처님과 약속한 수행을 지키는 첫 걸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보다 높은 신앙 에너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치아가 아픈데 내과를 찾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위가 아픈데 외과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상

자를 얻어 생활 속에서 삼보를 벗할 수 있습니다. 참회와 발원이 실천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공존하는 생의 한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의 주인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습니다.
주소 : 경남 진주시 망경동 9-3
전화 : 055-755-4697



인터뷰

화음사 수현 정사, 자심관 전수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오
인연은 오래전부터 맺게 되었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총지종 초창기부터 승직에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봅니다.
정식 인연은 1987년에 부친이 열반하신 후 제가 지금 교화하고 있는 화음사 헌공불사때 화음사에서 현 종령님이신 효강님의 추천으로(당시통리원장) 그해 가을부터 본사에서 교무 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생각하니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총지종 스승님들 중에서 짧은 세대에서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오
수행을 하는데 있어 철학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 하기에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현재는 한가지 한가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지지는 최우선적으로 불공수행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음사 교도뿐만 아니라 총지종 교도들은 새벽, 아침, 오후,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보다 불공수행을 덜하게 된다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교화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선배 스승님들께서는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걸어서 가정방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방문을 가서서 그 보살님이 안계시면 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방문하여 불공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중생은 전체적으로 교화가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 화음사에 부임하기 이전 일상사에서 교화하고 있었을 때 일상사는 시골이라 절에 나오는 보살님들이 도시와 비교하여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수행자는 '제천여의식(諸天與衣食)'이라 했는데 현 상태로 유지하다가 늘어죽기 딱 알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연구한 결과 오전 불공후 동네 가가 호호를 방문하여 얼굴부터 익히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인사도 다니고 농사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한번씩 한번씩 절에 나오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상사에 대해 잘 모르고 총지종과 밀교가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방문하여 밀교를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지는 한마디로 만능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너를 살리는 자제가 아닌 서로 죽이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볼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오
먼저 삼독중의 하나인 탐욕 때문에 아집과 집착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어떻게 하여 생겨났는가? 하면 "나"라는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 남

이아 죽든지 망하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살자, 나만! 하는데서 모든 욕심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눈은 갈수록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분별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마음 눈을 밝히려면 '나' 라는 것 '나' 라는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걱정하고 모든 행동기준을 남을 위해서 생활하는데 세운다면 시방 세계가 불국토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현행원품』에 "당신 앞에 갖다 놓는 것보다도 중생을 잠깐 동안이라도 도와줄 것 같으면 그것이 자기 앞에 갖다 놓는 것보다도 여러 천 만배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부처님에게 갖다 놓는 것보다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리아타행'을 실천 합니다.
▶시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오
현재 교화 하는데 어려운 점은 화음사 전당이 가장집이라 환경적으로 무척 열악합니다.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밀폐되어 여름철에는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 더위와 겨울철에는 냉동창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도 화음사 보살님들은 참고 인내합니다만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보살님들은 전당 실내를 한번 둘러보시고 얼굴에는 실망의 표정이 나타날 정도로 전당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음사 전당부터 새롭게 정비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시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일은 보살님들의 가장 가정마다 열심히 불공정진하여, 좋은 결과를 보게 되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을 때가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닦쳐왔을 때 보살님들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저희들과 상의하고, 불공 방법과 생활방식 등을 다시 점검을 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화음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오.
요즘들어 부처 총지종 보살님들이 화합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화합은 먼저 한발씩만 물러나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한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정성껏 도와주시고, 항상 화합된 모습으로 서로간에 분별심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간직하며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화음사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퇴전함이 없이 땀 흘리고 사하여 모든 가정이 해탈되고 소원성취되어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